



[현장 르포]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가보니
03



Economy

코스피	1927.17 (0.00)	코스닥	591.57 (0.00)
금리 (국채 3년)	1.10 (-0.05)	환율 (원·달러)	1210.80 (-1.90) (16일)

ELS 의 배신... 변동성 커지자 '中수익 중위험'

(5% ± α)

<원금전액 손실>

지난해 DLS·ELS 발행액 116조 전년보다 4조 늘어 '역대 최대치'
獨 금리연계 DLS 원금 손실 위기
홍콩시위 격화에 투자자들 불안
H지수 연계 ELS잔액 42조 달해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49.3	45.5	69.2	81.1	95.1	55.2	86.7	67.4	72.9
DLS	29.2	27.8	32.1	30.5	27.8	34.8	29.2	24.6	38.9
전체	78.5	73.3	101.3	111.6	122.9	90.0	115.9	92.0	111.8

/금융감독원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혔던 파생결합증권(DLS)이나 주가 연계증권(ELS) 일부 상품이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원인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블랙스완'이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당초 예상과 달리 선진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독일 국채 10년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0.2% 아래로 내려갔다.

DLS·ELS는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박'이 불가능한 중수익으로 제한해왔

다. 반면 입게 되는 손실은 가능성은 낮지만 원금 전체를 날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제2의 키코사태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 이미 소비자 소송은 추진 중이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관련 ELS 투자자들도 불안에 떨게 됐다. 특히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국내 ELS 미상환 잔액은 4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DLS·ELS 발행액은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이 넘게 늘면서 역대 최

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분기 DLS·ELS 발행액은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13조7000억원으로 110조원을 넘어섰다.

DLS·ELS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만 움직이면 연 5% 안팎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ELS가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면 DLS의 기초자산은 금리나 환율, 신용 등까지 가능하다. 일정 범위는 상품마다 다르지만 가입 당시

가격보다 40~60% 이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저금리 시대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이 올해 3~5월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했다. 6개월 만기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4%가 넘는 수익을 준다.

상품을 판매할 때도 2000년 이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 이하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0.718%를 기록했다. -0.2%를 기준으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며, -0.7%면 원금손실률 100%다.

DLS 상품 '깜통' 주의보에 이어 ELS 역시 비상등이 켜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H지수(HSCEI, 홍콩항셩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중복계산)으로 하는 ELS 발행 규모는 4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ELS 발행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8%를 차지한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었다. 상반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중복계산)으로 한 ELS 발행액은 32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ELS 발행액의 67.5%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미상환 잔액은 42조599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준 항셩치나기업지수(HSCEI) 9847, 항셩지수(HSI) 2만5281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7%, -2.2% 하락한 수준"이라며 "홍콩 주가지수 연계 ELS 투자자가 원금손실구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韓 수출경쟁력, 日 절반수준 소재·부품·기초장비 '열위'

한경연, 제조업 수출경쟁력 비교
韓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156개
日의 51.8%, 獨의 35.4% 수준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군이 일본과 독일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천대 제조업 수출 상품군 가운데 2018년 기준으로 품질경쟁력이 우위로 분석된 상품군은 156개로 일본(301개)의 51.8%, 독일(441개)의 35.4%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했다.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에도 무역수지가 흑자인 상품군을 '품질경쟁력 우위'로 분류했다.

아울러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 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적자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264개로 일본(130개)의 2배, 독일(65개)의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 으면서 무역수지가 흑자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은 한국이 217개로 일본(134개)과 독일(139개)의 약 1.6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이태규 연구원은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 제조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한국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품질 상품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품질경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조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 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한국은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로 분석됐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일본·독일 제조업 1000대 수출품목 수출경쟁력 평가>

(단위 : 개)

경쟁력 구분	한국		일본		독일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품질경쟁력 우위	165	156	303	301	432	441
가격경쟁력 열위	355	363	432	434	333	347
가격경쟁력 우위	221	217	135	134	139	139
품질경쟁력 열위	259	264	129	130	70	65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문화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김성재 김대중전직출간위원장, 김홍업 이사장, 박명림 도서관장 등 참석자들과 김대중 전직을 헌정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자산 선호... 외화보험 신계약 1년 새 10배

보험研 '외화보험 판매 동향'
달러강세에 올 1분기 1.5만건 판매
구조 복잡, 원금보장 안돼 주의요구

최근 안전자산 선호, 달러 강세(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017년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다.

외화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보장이 안 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안전판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18일 발간한 '외화보험 판매 동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개 생명보험회사의 최근 4년간(2015~2018년)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초회보험료와 신계약 건수는 5736억원, 5만141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은 2016년 이후 하락세(원화 가치 상승)를 보였지만 지난해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화보험은 올해 1분기에만 1만5735건이 판매됐다. 초회보험료와 수입보험료 규모는 각각 1874억원, 2292억에 달한다.

상품유형별로 보면 신계약 건수 기준 보장성보험(82.8%)의 비중이 높았고,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저축성보험(98.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납입 보험료를 해외 국제 중심으로 운용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해당 통화발행국의 채권(국채)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기 시 수익률을 방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인 상황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유학, 이민 등을 위한 외화저금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고3 올 2학기부터 '학비면제' 연 2조 무상교육 재원은 숙제

교육부, 내년엔 '고2'까지 적용
입학금·수업료 등 4개 항목 지원
사립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절감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전체 고교 무상교육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과 다른 것으로 내년에는 고2에 적용, 2021년엔 고1까지 전체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올해 무상교육 대상은 44만명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 지원

된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무상교육 수혜 대상은 88만명으로 늘고, 2021년부터는 126만명으로 확대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고3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 협조로 편성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고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전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2020년~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맨몸으로 한강 건너는 사람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열린 2019 한강 크로스 스위밍 챌린지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인도네시아은행 내달 출범

외환 전담부서, 한국데스크 신설
현지기업·韓진출기업 지원나서

오는 9월 IBK인도네시아은행이 출범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 승인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은행은 기업은행이 올해 1월 인수한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이다.

합병승인은 인수승인 후 8개월만이다.

이번승인으로 기업은행은 다음달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외환 전담부서와 한국데스크 등도

신설해 현지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한다.

현지 중소기업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해 글로벌 동반자금융을 강화하고 현재 30개의 영업망(아그리스 17개, 미트라니아가 13개)을 2023년까지 55개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 쌓은 역량을 인정받아 현지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베트남 지점의 법인전환, 미얀마 진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은행은 오는 9월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정식 출범한다. IBK기업은행전경. /IBK기업은행

"환차손 우려... 불완전판매 주의해야"

>> 1면 '안전자산 선호...'서 계속

하지만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원화 강제(원·달러 환율 하락)가 이어질 경우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또 외화를 원화로 변경할 경우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관리비용이 높아 해당 비용 차감시 실제 수익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

하고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저금리,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화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덩달아 외화보험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외화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2014년 922건에서 작년 2543건으로 늘어났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가 77%를 차지한다.

이 같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외화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 및 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판매 시 친족 동석 ▲은행의 판매수수료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향후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분양가상한제 후폭풍 신축 '강제' 재건축 '약세'

재건축단지 0.02% 올라 상승폭 ↓
5년이하 신축아파트 0.05% 올라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동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가는 크게 떨어진 반면 신축아파트는 오르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집값은 0.02% 올라 전주 상승 폭(0.04%)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의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2%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달 21억1425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현재 호가 21억원을 밀도는 매물도 여럿 나와있는 상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도 지난달 초 19억70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 사이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8억7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설계변경과 1대1 재건축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일 때는 분양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준공 5년 이하의 신축아파트는 지난주 0.05% 올라 오름폭이 전주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동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7월에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빌리에 2차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전용면적 84㎡ 매물이 역대 최고가인 7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약 한 달 전 7억3000만원에 거래했던 것보다 3800만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9월에 준공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6억원에서 현재 26억5000만원부터 28억원까지 시세가 형성돼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전용 114㎡의 분양권은 지난달 29일 11억1250만원에서 11억2370만원에 매매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 12억349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급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추진 일정 연기,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유리 기자

이열치열 제조현장 뜨거운 열기 속으로...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가보니

폭염 삼키는 1200도 철강 열기... '흘린 땀이 곧 품질'

여의도 3배... 모든 자재들의 생산지 후판공장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지난 13일 방문한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는 하나의 도시를 연상케 했다. 거대한 돔형 건물과 기다란 굴뚝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끌었다. 쇳물을 실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열차도 철길을 확보했다. 안내를 맡은 현대제철 송기원 홍보실 과장은 서울 여의도의 3배 면적에 해당하는 이곳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했다. 모든 시설이 하나의 유기적인 구성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에서다. 당진공장을 넘어 현대차 그룹의 건설, 철강,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자재들이 이곳에서 생산, 재활용되고 있다.

기나긴 컨베이어벨트는 모든 시설을 하나로 연결했다. 공장이 신체라면 컨베이어벨트는 '혈관'인 셈이다. 그 혈관을 따라 버스를 타고 원료의 이동방향을 알아나갔다. 공장설비가 가득한 곳임에도 방문한 모든 곳에서 사람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인부들의 시큼한 땀 냄새가 소결공장 엘리베이터 공기를 가득 매웠다. 공장을 나설 때 흘날린 철광석 가루가 해변 모래알처럼 신발 아래창에 묻어났다.

◆불타는 후판공장... 여기는 '1200도'

돔형의 원료저장시설 내부는 온통 깜깜했다. 강관의 원재료인 철광석을 보관하는 장소다. 천장에 난 조그마한 틈새를 통해 스며든 한줄기 햇빛이 산처럼 쌓인 철광석을 비췄다. 당진제철소 내에는 총 7개의 돔이 존재한다. 송 과장은 저장 설비 문을 열면서 "조업 중이라 지금은 안 될 것 같다"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조업을 마친 다른 돔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났다. 높이 60m, 지름 120m에 달하는 돔 한 가운데 원료가 오른쪽 구역으로 치우친 채 쌓여있었다. 내부에 보관하면 철광석 가루를 친환경적으로 더 높게 쌓을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부벽에 기대 축적돼 넓게 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방문한 후판공장 열기는 35도의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전경(위), 당진공장의 돔형 원료저장시설 전경.

/현대제철소

폭염도 삼켜버렸다.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이곳의 열기가 온몸으로 와 닿았다. 1200도로 달아오른 철강의 열기는 등에 한줄기 땀을 흐르게 했다. 빨갛게 달아오른 강관은 앞으로 밀리는 '가역식 압연'에 의해 최대 1만톤의 힘에 눌러 늘어났다. 송 과장은 "두께 6mm 이상을 후판이라고 한다. 너무 두꺼워서 1mm미만의 자동차 강관에는 쓰지 못한다"도 설명했다. 롤과 기계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물도 뿌려졌다. "하루 약 17만톤의 공업용수가 사용된다"는 말에서 공장의 규모를 실

감할 수 있었다.

◆거대한 소음뿐... '시끌시끌' 냉연로

냉연로에 들어서기 전 조그마한 리시버를 받았다. 공장 내 소음 탓에 설명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설 전체에 소음으로 인한 진동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피부에 맞닿은 후덥지근한 열기는 시원한 공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산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이룸의 찰 랭(冷)자는 1200℃의 열연로와는 달리 공정이 상온에서 이뤄져 비교적 차갑다는 의미였다.

열연로에서 만들어진 강관은 곧바로 산세장치로 향했다. 강관의 녹과 찌꺼기 등으로 얼룩진 표면을 염산으로 세척하는 과정이다. 안내원은 "강관에 남은 염산은 물로 씻어낸 후 바람으로 말린다"고 말했다. 눈으로 볼 순 없었지만 거대한 환풍기에서 나는 소음을 들으니 그러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깨끗하게 세척된 열연강관은 냉간압연기로 들어갔다. 6번의 압연으로 6mm 이상이었던 강관을 0.7~0.8mm 등 원하는 두께로 얇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말아 호일로 보관한 후, 다시 풀어 여러 개의 호일을 38초간 레이저용접기를 통해 하나로 만든다. 담당자는 "전기 저항용접과는 달리 레이저용접은 용접부위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아 연결부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과정은 표면도금 작업이었다. 철강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이자. 아연으로 도금한 냉연강관은 먼발치에서도 번쩍번쩍 빛이 났다. 공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새 옷을 입은 듯 했다. 강관은 끝으로 두께와 도금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제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김상길·김수지·송태화·이인영 수습기자

ysw@metrosecoul.co.kr

미세먼지 감축 설비로 대기오염 오명 벗는다

당진공장 2소결 SGTS 설비 가동 2021년 3소결 SGTS 완공 땀 미세먼지 배출 절반 이상 줄 듯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절반 이하 수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며 친환경 공장으로 '한 골탈태' 했다. 현대제철이 지난 5월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SGTS(Sinter Gas Treatment System, 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를 가동하고부터다. SGTS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소 당진공장 고로 전경.

/현대제철소

현대제철소의 의지로 풀이된다.

소결공장은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을 배출한다. 현대제철은 2017년 기존의 소결 공장에 약 4100억원을 투자해 SGTS 청정설비를 새롭게 구축, 지난 5월 28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환경상황실에 따르면 총 3기의 SG

TS가 모두 가동되는 2021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2만3292톤(2018년 기준)에서 1만톤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13일 2소결 SGTS가 본격 가동되며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이 30ppm 수준으로 줄

어들었다"며 "3소결 SGTS가 가동되면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 조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황산화물 84ppm(법적기준 250)이하 ▲질소산화물 105ppm(법적기준 250)이하 ▲먼지(mg/sm³) 16이하(법적기준 50)로 강화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1일 배출량이 140~160ppm 수준을 웃돌던 직전과 비교하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감한 셈이다. 여기에 3소결 SGTS가 내년 6월 완공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IT기술이 융합된 환경상황실도 운영한다. 만약의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중부권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기 위해서다. 전송된 자료는 환경부와 충남도, 당진시 등의 행정기관에서 공유돼 공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김상길·김수지·송태화·이인영 수습기자

“온리원 대학’ 위한 혁신실험… ‘新 대학평가시대’ 선도”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이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리대학을 말하다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대담 | 김승중 정책사회부 부장

세계대학의 랭킹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뒤바뀔 전망이다. THE·QS 등 기존 세계 대학 랭킹시스템이 ‘연구 실적’ ‘기술이전 수입’ ‘평판도’ 등 연구중심대학에 유리한 지표로 이뤄져 있었다면, 내년 5월 새로이 선보일 랭킹시스템은 ‘혁신교육’이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대학을 경쟁력 높게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인천대학교의 ‘실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천대에는 70여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세계 ‘한자대학동맹(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제2회 총회’가 열려 이 같은 논의를 마쳤다. 총회에서는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WURI;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이 공개됐다. ‘1등(The First)’보다는 ‘유일한(Only one)’ 대학이 되겠다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지론도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1등 대학이 되겠다는 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것인데 비해 유일한 대학은 차별화된 방식으로 경쟁자를 뛰어 넘자는 의미”라며 “경쟁을 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데서 갈 길을 찾고 싶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메트로신문)은 1등 대학이 아니라 차별화에 방점을 둔 새로운 세계대학랭킹 준비를 주도한 조동성 총장을 만났다.

-최근 인천대에서 한자대학동맹이 열렸는데, 어떤 단체인가.

한자대학동맹은 지난해 네덜란드 한제 대학(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

인천대서 글로벌 대 ‘한자대학동맹’ 총회 개최 대학 3만곳 다양성 고려한 ‘랭킹 시스템’ 논의 사회 수요에 맞춰 인재 양성… 대학은 ‘플랫폼’ 경쟁 피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한발 앞설 것



ences)이 주도해 만든 국제대학연맹이다. 한자대학동맹은 지난 7월 초 우리대학이 4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제2회 한자대학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70여 개 우수대학 총장들과 함께 각자의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세계 고등교육의 미래와 새로운 대학평가시스템을 논의했다.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도 공개했다.

한자대학동맹은 내년 3회 총회(5월 즈음)에서 대학 혁신 사례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학랭킹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는 약 3만개의 대학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종 평가의 최상위권 연구중심대학 200여개 대학들만 유명 세계대학랭킹 시스템을 점령한다. 나머지 2만 9800여개 대학들은 기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지만 랭킹에서 소외되고 만다. 이에 지난해 한자대학동맹 총회에 모인 세계 대학 총장들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랭킹을 아예 없애자는 게 이야기가 아니다. 2만9800여개 대학의 나라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고려한 랭킹을 만들자는 것을 고민하자는 의미다.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 평가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크게 세 가지다. 창조성, 확산가능성, 산업적용성이다. 이를 참가대학들이 자기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소비자의 점수를 가장 크게 본다. 여기서 소비자는 고교졸업생을 통틀어 모든 교육생들이다. 여기서 교육기관은 꼭 정부가 제도적으로 승인한 대학이 아닐 수도 있다. 즉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즉 세계대학랭킹시스템 랭킹에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요자, 즉 교육생들이 기업의 교육이 소비자관점에서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세계대학랭킹시스템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

-역시 ‘혁신’의 아이콘답다. 인천대 내부적으로는 어떤 혁신이 있는가.

이는 랭킹시스템의 혁신이고 인천대 내부적으로는 교육·연구 혁신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바로 매트릭스칼리지다. 산학협력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교육과정 편성을 기업이나

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산학협력 모델 ‘매트릭스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기업체가 대학에 와서 원하는 과목을 설계하고, 학생들은 가고 싶은 기업이 짠 교과를 선택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원하는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을 교육한 뒤 심사를 거쳐 데려가는 개념이다. 대학은 일종의 플랫폼인 셈이다. 매트릭스 교육제도 기본 취지는 ‘대학 속 기업, 기업 속 대학’이라는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모형 창출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기존에 대학에서 이뤄지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동시에, 기업이 설계한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을 이수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맞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유학생 확보 등 국제화에도 역량을 넓히고 있다고.

학령인구감소가 심각하다. 방안은 유학생 확보다. 이에 지난해 400명 규모였던 외국인 학생을 6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는 55개국 국기가 걸려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55개 국가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200개로 늘리려 한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 대사들에게 매년 우수학생 한명을 추천해주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사관을 설치하지 못한 국가를 중심으로 국내에는 148명의 각국 명예영사가 있다. 국내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못한 국가의 대사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다.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도 학생 추천권을 줬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 한국어학당 분원을 만들고 있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정리=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조동성 총장은...

194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교무부처장 겸 기획부실장, 발전기금 초대 상임이사, 국제지역원장, 경영대학장 등을 거쳤다. 2014년 서울대 은퇴 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형 경영대학인 장강 상학원에서 전략 전공 전임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년 7월 인천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경영학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안중근의사기념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검 감찰위원장, 핀란드 명예총영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 핀란드 알토대학 명예박사, 황조근정훈장, 핀란드 백장미 기사 1급 훈장을 받았다.

“손만 있으면 다 되네” 계좌부터 통장·상품 확인까지

르포
디지털뱅킹 현장을 가다
우리·기업·수협은행

우리은행 은행상품 디지털확인
기업은행 바이오 정보등록
수협은행 디지털창구 시범 운영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이자만 많이 주는 상품을 고르기보다 선택 과정에서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주는 상품을 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키오스크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더 쉽고 빠르게 편리한 금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클릭 한번에 최신 금융상품 확인...우리은행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을 활용한 홍보도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방문한 우리은행 본점에는 8대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큼직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눈에 들어왔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포스터, 안내표시, 광고 등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에 종이포스터나 플래카드를 은행과 은행 상품을 알렸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은행 디지털 키오스크 /나유리 기자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니 직원 뒤편에 위치한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영상이 흘러나왔다. 1분 10초가량 이어지는 영상에는 우리은행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리은행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우리은행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다 /나유리 기자

창구 내 주변에는 태블릿 PC방식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돼 있었다. 이용방법도 간편했다. 스마트폰처럼 손으로 클릭하니 최신 금융상품은 물론 여행과 맛집, 영화, 패션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상품은 물론 기존 가판대에 꼽혀있던 상품 팸플릿이 화면으로 모두 옮겨져 있는 듯 했다.

관심 있게 보던 청년 주택청약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하고 대기번호에 맞춰 직원과 바로 상담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도입되면서 영업점 내부는 쾌적해지고 고객은 더욱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지점 등 각 영업점 내 인테리어 간판도 비디오월로, 종이포스터는 디지털포스터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통장가입...기업은행 '디지털 뱅킹존'

지난 14일 오전 계좌 개설을 위해 IBK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디지털 키오스크 앞에 섰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기존 금융자동화기기(ATM)에 은행 창구 업무 기능이 더해진 다기능 ATM이다. 정맥 스캐너나 신분증 투입구 등이 포함해 일반 ATM보다 1.5배 정도 커 확연히 눈에 띄었다.

바이오 정보등록을 위해 오른손을 정맥 스캐너 위에 올리자 곧바로 본점에 있는 고객센터 직원과 화상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직원이 화면을 통해 고객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던 것.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스캔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계좌가 개설됐다. 인증부터 계좌개설까지 10분가량 소요됐다.



IBK 기업은행 남대문점의 디지털 뱅킹존 정맥 스캐너. /송태화 수습기자

등록절차가 끝나니 이용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손바닥을 갖다 대니 전체 메뉴에 있는 50개 입금·출금·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손바닥 인증 후 해당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도 채 20초가 걸리지 않았다.

디지털키오스크의 최대관문은 이용이 아니라 바이오 정보등록 과정이었다. 20대 기자가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복잡한 절차로 손바닥을 댄다 떼기를 반복하고, 중간에 오류가 나서 초기화면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등록카



디지털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 /김상길 수습기자

지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장·노년층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IBK 기업은행 남대문점의 디지털 뱅킹존. /송태화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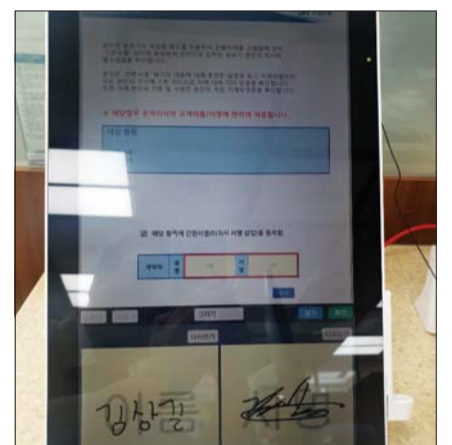
기업은행 남대문지점 관계자는 “가입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등록만 하고 나면 카드나 통장을 활용할 때보다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번 서명은 한번으로 끝...수협은행 '디지털 창구'

지난 14일 방문한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 입구부터 늘어진 각각의 거래 창구에는 태블릿 PC들이 줄지어 있었다.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에 직원은 종이 대신 ‘옆에 보이는 화면을 봐 달라’는 말을 건넸다.

태블릿PC 화면 속에는 기존의 종이 서류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한 몇 장의 서류가 있었지

만 첫 화면에서 ‘간편 서명’을 한 이후에는 서명란이 자동으로 채워져 나왔다. 10번에 걸쳐 서명해야 했던 과정이 한번으로 줄어든 것. 신규 간편서명으로 창구에 앉아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건네받기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태블릿 PC화면속 한번만 서명하면 자동으로 서명이 입력돼 서명입력 10번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김상길 수습기자

다만 첫 신규고객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를 종이 서류에 기입해야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태블릿 PC에 신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기재란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창구를 시범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김상길·송태화 수습기자
yul15@metroseoul.co.kr

잠자는 금융재산 8.9조... 파인으로 찾아보세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감원 Q&A
휴면금융재산 찾기

Q. 얼마 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미수령 주식 1만주(2억5000만원)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가기 캠페인’을 통해 주식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휴면금융재산 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2015년 6월 이후 금감원 등은 국민

이 찾아가지 않는 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시중에는 약 8조9000억원의 휴면금융재산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2000억원,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세요.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 예·적금(은행·저축은행·협동조합 포함)은 물론 휴면보험금, 휴면성권, 미수령 주식, 신용카

드 포인트, 미환급 공과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파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를 클릭해 망인의 휴면금융재산 내역과 상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휴면금융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금융습관도 중요합니다.

먼저 금융상품의 만기에 ‘자동 재예치’ 또는 ‘다른 계좌로 자동 입금’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상품 가입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희주 기자 hj89@

명절 대비 15조지원... 대출금리 1.2%p 우대



우수 기술 보유 기업 등 중점 지원

우리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 명절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를 중소기업 추석 명절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신규 6조원, 만기연장 9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B2B대출, 구매자금대출, 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대출만기연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는 최대 1.2%포인트까지 우대한다.

특히,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추석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딥체인지 위한 최태원의 인적 투자... SK유니버시티 신설

〈SK그룹 회장〉

SK그룹, 내년 1월 공식 출범

경영경제연구 등 역량개발 조직 통합
구성원들의 지속적 미래역량 강화

SK그룹이 구성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기관을 만든다.

SK그룹은 내년 1월 SK 유니버시티를 공식 출범시킨다고 18일 밝혔다.

SK유니버시티는 SK경영경제연구소와 SK아카데미 등 역량개발 조직을 통합해 만들어진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전문 조직을 운영해 딥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최태원 회장 경영방침에 따른 조치다.

최태원 SK 회장은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Human Capital(인적 자



최태원 회장은 올해에도 오찬에 참여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SK

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구성원들은 SK University를 통해 미래역량을 기르고 축적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구성원들의 지속적

인 성장과 행복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SK 유니버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개별 운영했던 연수원과 연구소 등을 통합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SK 유니버시티는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업무형태와 핵심 역량에 대비한 교육 기능뿐 아니라 미래 역량을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등 연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SK그룹은 SK유니버시티가 성장동력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실행력을 제고하며 구성원 성장육구 충족 및 SK그룹 지속 가능성장까지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했다.

SK유니버시티는 SK 구성원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AI를 활용해 커리어와 역량에 맞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선택해 수강하게 돕는다. 매년 구성원의 근무시간 10%에 해당하는 200시간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미래성장파 비즈니스모델 혁신, 사회적 가치와 행복 및 리더십 등이다. 교육 방식은 클래스룸과 워크숍, 포럼, 코칭프로그램에서 온라인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다양하다. 경기도 용인 SK 아카데미 시설과 관계사 공유오피스 등을 지원한다.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퇴직임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주요 교육과정은 미래성장파 비즈니스모델 혁신, 사회적 가치와 행복 및 리더십 등이다. 교육 방식은 클래스룸과 워크숍, 포럼, 코칭프로그램에서 온라인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다양하다. 경기도 용인 SK 아카데미 시설과 관계사 공유오피스 등을 지원한다. 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 퇴직임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車 생산능력 내리막... 16년 만에 '최저' 우려

현대차 등 3개사 상반기 생산능력
173만대로 작년 보다 1.6% 감소

한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지난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주요 업체의 생산능력이 감소세를 보였다.

18일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올해 상반기 국내 공장의 생산능력은 모두 172만 942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75만6930대)보다 1.6% 감소했고, 2017년 상반기(179만 5230대)와 비교하면 3.7% 줄었다.

공장 생산능력은 연간 표준작업시간과 설비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가동률의 곱으로 산출한다.

상반기 생산능력을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는 88만6100대로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기아차는 76만1000대로 2.4% 줄었다. 쌍용차만 8만2320대로 0.9%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3개사가 생산한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 171만1944대로 작년 동기(164만629대)보다 4.3% 증가했지만, 2017년 상반기(173만1691대)와 비교하면 1.1% 감소했다.

이처럼 주요 완성차업체의 상반기 생산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은 453만 5000대로 2003년(439만6000대) 이후 가장 낮았다.

국내 차 생산능력은 2003년 바닥을 찍은 뒤 업체들이 생산설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한 2004년에 480만5000대로 반등했다. 이후 460만대 이상을 유지했으며 2012년에는 498만4000대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480만1000대, 2014년 468만9000대 등으로 급감했고 2017년에는 458만9000대로 460만대 아래로 내려섰다.

국내 차 생산능력이 2013년부터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당시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영향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능력은 연간 표준작업시간이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이 폐쇄도 생산능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생산능력 감소에 따라 생산실적도 꾸준히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실적은 2013년 452만1429대에서 지난해 402만8705대로 5년 만에 10.9% 줄었다.

2015년(455만5957대)부터는 국내서 만들어진 자동차 대수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422만8509대, 2017년 411만4913대에 이어 지난해는 400만대선도 위협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세계 5위였던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 순위는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지난해는 멕시코에 추월당하며 7위로 떨어졌다. /정연우 기자



LG전자는 미국 ATB를 후원한다.

/LG전자

LG 시그니처, 美 발레단 통해 프리미엄 강화

LG전자, ABT와 파트너십 체결
후원기간 3년간 체험공간 마련
구매고객에 공연관람 이벤트도

LG전자 시그니처가 발레와 만난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앞으로 3년간 ABT를 공식 후원하고, 후원 기간 ABT 공연 장소에 LG시그니처 체험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시그니처 구매고객에 공연 관람 기회 등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ABT 후원을 통해 시그니처의 예술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BT는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무용수 '서희' 씨가 아시아 최초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해 더 유명세를 높였다.

캐라 메도프 바넷 ATB 단장은 "ABT 무용수들은 예술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열정을 불어넣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LG 시그니처와 ABT의 모습이 서로 닮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은 "LG 시그니처의 압도적인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LG U+, 5G 단독모드 상용화 '성큼'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 기술
삼성 5G NSA 코어장비 연동 검증

LG유플러스는 5G SA(단독모드)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삼성전자 5G NSA(비단독모드) 코어 장비에 국내 처음으로 연동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5G SA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코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5G SA 코어 네트워크는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높은 패킷 교환기, 단말 이동성 관리 교환기, 가입자 정보 및 가입자별 최적 과금·품질 보장 정책 관리, 장비 간 라우팅 기능 제공,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5G 가입자 정보 관리 장비(HSS)와 가입자별 최적 과



LG유플러스는 5G SA의 핵심기술인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삼성전자 5G 비단독모드(Non-Standalone, NSA) 코어 장비에 국내 처음으로 연동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금·속도 정책 관리 장비(PCRF)에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를 적용해 5G NSA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신호 처리

장비와 연동을 완료했다.

이번에 상용화한 소프트웨어 기반 코어 구조는 모든 장비에 동일한 연동 규격을 제공해 장비 간 연동을 편리하게 한다. 신규 장비 추가도 용이하다. 상용화는 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아리아텍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이 구조 기술을 향후 도입하는 패킷 교환기 등 5G SA 코어 장비에도 확대해 SA 상용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이상현 NW개발담당은 "5G SA가 상용화되면 서비스별 최적의 품질 보장, 통신 지연 시간 최소화, 단말 전력 소모 개선 등이 가능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차세대 서비스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제 15회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에 참여한 황지나 한국지엠 부사장(맨 앞줄 가운데 왼쪽)과 오토사이언스 캠프 임춘서 캠프장(맨 앞줄 가운데 오른쪽)이 캠프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쉐보레 오토사이언스 캠프 성황리 개최

한국지엠 쉐보레는 공식 후원하는 '제 15회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를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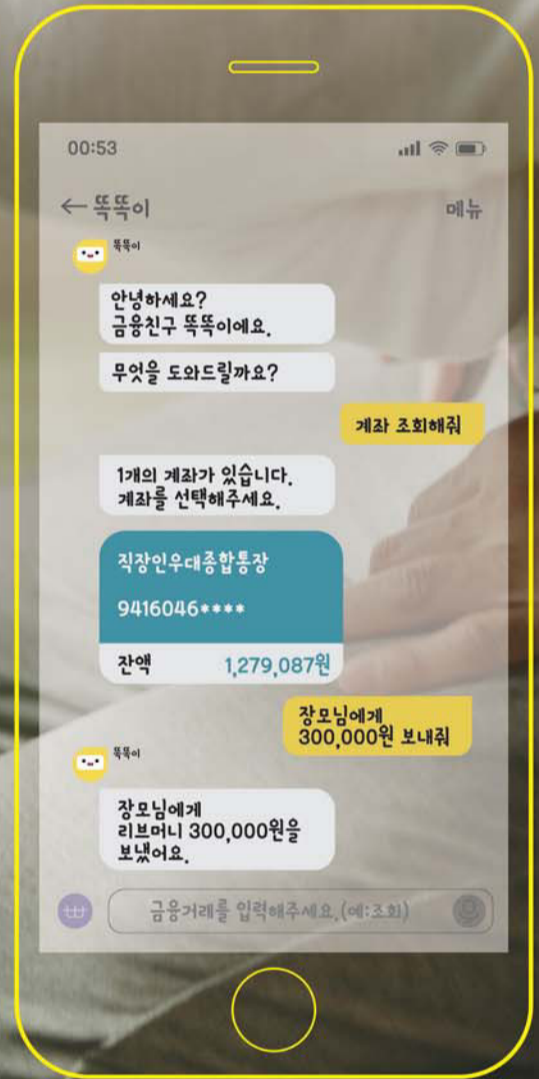
지난 200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

는 '제 15회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를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오토사이언스 캠프'는 자동차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한국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지엠이 공식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700여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짜잔~ 우리 주원이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용돈보내기 완료”



모바일 메신저 형태의 대화형 banking 플랫폼 리브똑똑

아이와 함께 보내는 1분 1초가 소중한 당신
번거로운 금융거래는 KB에게 맡기고, 당신은 행복한 일상만 즐기세요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금융그룹

부산·대구 찍고 서울로... 갤럭시10 팬파티, 전국 '들썩'

삼성전자, 팬들 아이디어로 연출
23~24일 서울, 30일 대전서 진행
타이거JK·장범준·샘김 등 공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10.5G' 국내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팬 파티'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4회차를 맞는 갤럭시 팬 파티는 색다른 프로그램과 탄탄한 라인업으로 더욱 특별하게 구성됐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막을 연 이번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아이디어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갤럭시 팬 파티가 개최되는 5개 도시의 대학생 팬들이 '도시별 밀레니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파티를 시작한다.



갤럭시 노트10+ 아우라 글로우. /삼성전자

갤럭시 팬 파티 현장도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더욱 감각적으로 구성된다. 갤럭시 팬들은 팬 파티 공간 어디에서나 인생샷을 남길 수 있고, 유명 아티스트 '노보(NOVO)'와 함께 제작한 네온 타투 스티커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사랑하는 팬스



지난 17일 대구 북구 빌리웍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 /삼성전자

페셜리스트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요리하는 연출가 이육정 PD는 5개 도시의 대표 재료와 팬 스토리를 결합한 밀 박스를 선보인다.

예능인 홍윤화·김민기 부부, 흥헌희·제이슨 부부가 팬들이 직접 응모한 팬 스토리를 소개하고, 방송인 박준형씨는 팬 피트니스 영상을 통해 팬들과 함께 소통한다. 힙합 뮤지션 타이거 JK와 윤

미래는 팬 스토리를 주제로 만든 음원을 '팬 스토리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 외에도 김하은, 장범준, 샘김 등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이 밖에도 팬 파티를 기념해 노보가 디자인한 미니잔을 특별 굿즈로 제공한다.

갤럭시 팬 파티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서울(8월 23일~24일, 블루스퀘어), 대전(8월 30일, 톨디커피), 광주(8월 31일, 커뷰)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갤럭시 팬 파티는 '갤럭시 노트10.5G·갤럭시 노트10+ 5G' 사전 예약자를 포함해, 갤럭시의 팬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착한가격에 성능 '굿' 소비자 호평



쉐보레 '이쿼녹스'

상반기 국내 판매량 '동급 최대'
뒷좌석 원터치 폴딩시스템 적용



쉐보레 이쿼녹스 실내모습.

쉐보레 이쿼녹스가 수입차 시장에서 '가격·디자인·성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쉐보레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의 회원 가입을 결정하면서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이 정식 수입차 신분을 취득한 덕분이다. 그 동안 수입차와 국산차 사이에서 애매했던 분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수입 판매 중인 이쿼녹스에 대한 이미지와 소비자 인식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국산차라는 인식 때문에 외면 받았지만 이제 수입차로 분류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다.

이쿼녹스는 '착한가격'을 앞세워 상반기 국내서 총 1083대를 판매했다. 이는 동급 수입 중형 SUV인 지프 뉴 체로키(950대), 혼다 CR-V(921대), 도요타 RAV4(795대)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동급 수입 중형 SUV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이다. 이쿼녹스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숨은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 공원을 왕복하는 11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이쿼녹스의 외관은 강인한 인상을 준다.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근육을 연상케 하는 볼륨감을 만들어낸다. 쉐보레의 디자인 언어인 '린 머스쿨러티'를 적용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늘씬하면서도 굴곡이 있는 '잔 근육'처럼 역동적이고 세련된 외관디자인을 연출한다.

실내 디자인은 쉐보레 특유의 듀얼록핏 디자인을 이어받아 안락함을 강조했다. 천연 가죽을 포함해 크롬 등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조합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했다. 실제로 이쿼녹스의 실내공간은 '2018 워즈오트 10대 인테리어'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실내 공간은 넉넉했다. 1열 공간의 여유는 물론 2열도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성이 뛰어나 키 큰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하지 않았다. 적재공간은 원터치 버튼 조작으로 2열 시트를 평평하게 접을 수 있는 뒷좌석 원터치 폴딩 시스템이 적용돼 1800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쉐보레 이쿼녹스 주행모습.

LCC, 동남아·괌·대만 '노크'

에어서울 항공기.

중, 국내항공사 신규취항 금지조치 국토부, 靑 신규노선 지원 TF 운영

일본 여행거부 운동을 피해 중국 노선에 집중하려 했던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가 중국 정부의 거부로 중화권을 피해 동남아시아, 괌, 대만 등 노선에 증편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취항 및 증편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국내 항공사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중국 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 및 증편·임시 증편,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없다.

당초 국내 LCC들은 일본행 여행객 수요 감소로 중국 노선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중국 측의 이번 결정으로 취항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조정하게 됐다.

8월 중 중국 6개 노선을 취항하겠다고

고 했던 제주항공은 ▲인천-하얼빈 ▲부산-장자제 ▲무안-장자제 등 3개 노선이 막혔다. ▲인천-엔지 ▲무안-엔지 ▲인천-난통 등은 제외다. 티웨이항공은 ▲대구-장자제 노선 ▲대구-엔지 노선, 이스타항공은 ▲인천-장저우 노선 ▲청주-장자제 노선 취항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LCC들은 중국 노선이 아닌 동남아, 괌 등 타 노선 증편 계획을 발표 중이다. 우선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아세안(ASEAN) 지역 LCC 신규 노선 개설 지원 TF'에 신규 노선 개설 지원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항공사들에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 아세안 지역과의 항공연결성 강화, LCC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 LCC 신규노선 개설 지원 TF'를 운영한다고 알린 바 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공모 후 다음달 2개 내외의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개설을 지원할 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 "10만원으로 사이판여행 가요"

오늘부터 동남아 '메가 얼리버드'

티웨이항공은 동계 항공권 초특가 판매 이벤트인 '메가 얼리버드'를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5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에서 국제선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구와 부산 출발 노선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과 제주 출발 노선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국제선 특가 운임은 편도 총액운임(유류세, 공항세 포함) 기준 3만7700원

부터 판매하며, ▲대구-다낭 7만7100원~ ▲부산-다낭 8만100원~ ▲대구-세부 8만3600원~ ▲대구-방콕 9만9020원~ ▲인천-사이판 10만57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메가 얼리버드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이번 메가 얼리버드 기간 내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카카오페이나 KB국민카드 15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티웨이항공은 초과 수하물 신청, 사전 좌석지정, 기내식 사전예약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선보이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에어서울은 동남아 노선을 증편하겠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며 인천-괌 노선의 주간편 증편 기념 특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오는 20일부터 부산-타이베이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10회로 늘려 운항하기로 했으며 티웨이항공은 다음달 6일 부산-가오슝 노선을 시작으로, 12일 부산-타이중 노선에 신규 취항해 지방공항을 통한 새로운 하늘길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로 동남아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다. 진에어는 국내선, 제주발 국제선 증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 기준 8월 3주차 일본 노선 여객은 1년 전보다 3.9% 감소한 22만9000명으로 알려졌다. 국내 LCC들은 하계 스케줄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60여 곳의 일본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편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메가 얼리버드 이벤트 이미지. /티웨이항공

있는데, 초과 위탁 수하물을 사전 구매 시 5천원 할인 가능한 쿠폰도 다운받을 수 있다. 더불어 19일부터 25일까지 인천-가오슝 노선 증편 기념 특가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편도 총액 5만6400원부터 판매한다.

/정연우 기자

증권업계, 새내기 CEO 돌풍... IB 업고 첫 해 성적 A+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익 1조 코앞

KB증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

합병 후 반기 기준 최대 실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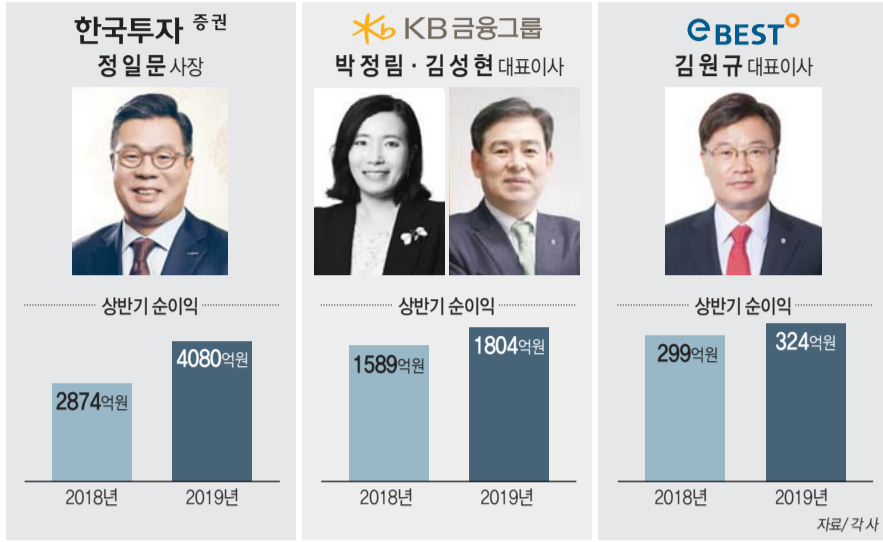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원규 대표이사

IB 부문 강화로 업계 상위권 수익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내외 악재 속 견조한 실적을 내놨다. 특히 올해 취임한 최고경영자(CEO)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취임 당시 공언했던 목표들도 순항 중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KB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3개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올해 CEO가 새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올해 취임한 증권사 CEO 상반기 성적표



◆ '사상 최대' 한투·KB

한국투자증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4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0% 늘어났다. 정일문 사장 취임 후 1, 2분기 연속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 중이다.

취임 당시 목표로 삼았던 '영업이익

1조 달성'도 코앞이다.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186억원이다. 상반기만큼만 하면 연내 영업이익 1조 달성 첫 증권사 타이틀을 달게 된다.

KB증권은 '합병 후' 최대 실적을 내놨다.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5% 늘어난 1804억원을 기록했다. 올 초 김성현·박정림 투톱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IB와 자산관리(WM) 부문을 '따로 또 같이' 키우겠다는 전략이 적중했다.

KB증권의 상반기 IB순이익은 799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IB 조직 개편과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면서 IB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WM 역시 순조롭다. 채권형 상품 판매에서 소위 '대박'을 치면서 지난해 말 20조4000억원이던 금융상품 잔액은 올 6월 말 25조6000억원으로 약 25% 늘어났다.

아울러 지난 5월 KB증권의 숙원사업이었던 발행어음 인가로 영업의 보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미 2개월 만에 약 8000억원어치의 발행어음 잔고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현·박정림 공동대표도 경영행보를 본격화하게 됐다

◆ '체질강화' 이베스트

대형 증권사의 실적 잔치 속 중소형 증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상

반기보다 8.4% 늘어난 324억원을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진 속 실적 성장을 이끈 것은 IB 부문이라는 평가다. 올해 3월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것 역시 IB 강화다. 이를 위해 IB사업 본부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IB 사업부 대표(부사장)를 새로 영입기도 했다.

자본은 작지만 수익성 부문에서는 업계 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28위였던 업계 당기순이익 순위는 단숨에 19위권으로 뛰어올랐다. 해당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7%에서 14.5%로 높아졌다.

다만 액면가 수준으로 내려온 현주가(5000원) 회복은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8000원대였던 주가는 5000원대로 내려앉았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조합원이 봉이냐'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가입 2500만 돌파... 로또 당첨 기대

지난해 무주택자 위주 청약제 개편
당첨 확률 기대 높아져 가입자 증대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25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통장 가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가 2506만126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9만932명 늘어나 2326만 8991명을 기록했다. 올해 초(2267만 7240명)보다 9만8625명 늘어난 규모다. 매달 10만명 가량이 새로 청약통장을 만든 셈이다.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된 시기다.



특히 지난달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679명 늘어나 전달(6940명)대비 2.84배 늘었다.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공공주택 수직정원·식물정화벤치 시범 도입

LH

에너지 절감·미세먼지 정화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수직 정원과 식물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직 정원은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초목을 심어 재배하는 녹화공법이다. 자연 친화적인 데다 건축물 미관 개선, 열섬 현상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뛰어나다.

수직 정원은 관리가 어려워 그간 상업시설이나 도입됐지만 LH는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자동화 관수 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주택에도 수직 정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 도입 대상 단지는 화성봉담2 A 2블록과 양주회천 A17블록이다. 커뮤니티센터 등에 추운 겨울도 이겨내는 식물이 식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공공주택 입주민들



LH 수직정원 예시도.

/LH

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직 정원 외에도 식물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식물정화 벤치는 식물과 벤치가 조합된 복합 휴게공간이다. 식물의 자연적인 정화 효과에 더해 전 자동 공기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나무 105그루가 있는 작은 숲과 같은 공기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식물정화 벤치는 대구연경 S1블록에 시범 도입되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기능도 갖추게 된다.

/연합뉴스

불확실성 속에서 주식형펀드 소폭 반등

주간펀드동향

국내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펀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안전자산인 채권형 펀드의 강세는 이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8월9일~14일)간 전주 대비 1.50% 상승한 1938.37포인트로 마감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척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품목 언급이 없었지만 한국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졌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2.98% 내렸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2.11%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0.75% 올랐다. 모든 유형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인덱스주식형펀드가 0.99% 올랐다. 전주 대비 소폭 반등에 힘입어 74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고, 순자산은 479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7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한 주간 친디아(중국+인도)지역의 펀드가 1.75%로 수위에 올

랐으며, 북미(1.61%), 브라질(1.28%)이 뒤를 이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한 주간 610억원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순자산은 11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채권 시장의 강세는 전주 대비 감소했으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뤄졌다. 국내채권형펀드는 전주보다 3420억원 자금이 유입됐고, 해외채권형펀드는 2180억원이 순유입됐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3.40%)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헬스케어섹터인 '블랙록월드헬스사 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펀드가 2.89%로 수위를 차지했다.

/손영지 기자

집값 내리는데 가계부채는 1500조... 'R의 공포' 엄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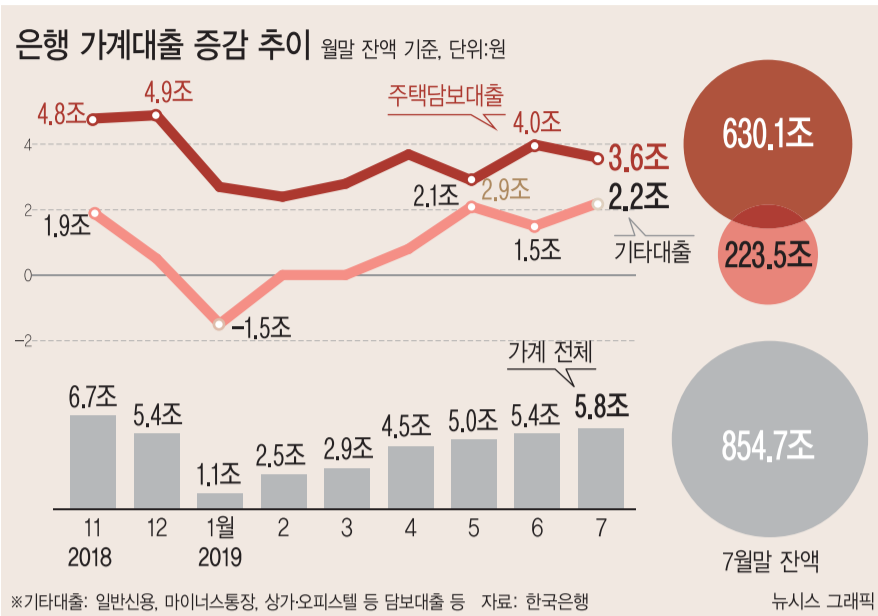
(경기침체)

지난달 5.8조 ↑... 증가폭 커
경제성장세보다 빠르게 늘어
빚부담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물가 상승률·성장률 하락 야기

올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47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 'R(경기침체)의 공포'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면서 빚 부담은 증가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8일 2분기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1451조9000억원이었으므로 2분기 말 잔액은 1467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계대출에는 예금은행·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과 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이 포함되는데 기타대출이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은 정부 규제와 주택 매매 감소가 맞물리며 지난 1분기 3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1만3919호로 지난 1분기(5450호)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자금수요도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대신 기타대출에 몰려 2분기 증가세가

1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7월 들어서는 대출 증가세가 더욱 거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 달 새 5조8000억원 늘어 5월(5조원)과 6월(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런 추세라면 가계대출 잔액은 곧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가계대출은 경제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2분기 가계대출은 작년 동기 대비 4.1% 안팎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0%)과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R의 공포 속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고성장·고물가에서는 부채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도 많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져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침체 상황에는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하락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빚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줄일 경우 물가는 더 낮아지고 민간소비가 감소한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빚 부담은 늘어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타나 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채 디플레이션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일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 0.03%보다 소폭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제조업 부진은 ‘지구촌 공통 현상’ 보호무역 영향으로 글로벌 침체”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4년전 중경기둔화 때보다 악화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둔화 정도가 지난 2015년 중국 경기 악화 당시보다 더 나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5월 1.3%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두 차례 있었던 제조업 수축국면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경기수축국면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수축국면1)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5%로 유럽 재정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수축국면2)는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0.9%까지 떨어졌다.

경기수축 속도는 더 빨라졌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산업 생산 증가율의 월평균 하락폭은 0.16%포인트로 중국 경기가 나빠진 수축국면2(0.11%포인트) 때보다 하락폭이 1.5배 높았다.

지난달 기업의 생산 업황을 나타내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의 저점(48.8)보다 높지만 중국 경기둔화 시기의 저점(50.2)보다는 낮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생산 증가율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하락했다. 경기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했다.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가 확장적 거시정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중간재의 경우 PMI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주요국들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 수축국면과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교역위축(무역경로)과 투자감소(불확실성 경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분업체계가 약화도 교역, 생산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세계경제 여건을 보면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개최된 G2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합의 없이 유럽연합(EU) 탈퇴)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과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향후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청문회 위해 주말 출근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띄는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최근 불안해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0대 그룹 영업익 반토막... 현대차 '방긋'

(상장사)

상반기 영업익 총 21조2977억
현대차 3.4조... 38.55% 증가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8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비스가 10대 그룹 계열 90개 상장사(금융계열사 제외)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총 21조2977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8189억원)보다 53.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8조10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1조9189억원)보다 63%나 줄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상반기 6.59%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분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 12.98%에 훨씬 못 미치는 4.95%로 떨어졌다.

그룹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두 곳뿐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71.87%)과 한화(-63.90%)의 부진 속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18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341억원)보다 72.81% 감소, 1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그룹의 영업이익도 23조2704억원에서 7조9443억원으로 65.86%나 줄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9.91% 급감한 영향이 컸다.

한진그룹의 영업이익은 3701억원에서 1367억원으로 63.07% 줄었다. SK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3642억원에서 61.13% 줄어든 5조1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3.93%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외에도 롯데그룹(-32.01%), 신

세계그룹(-30.66%), LG그룹(-22.82%), GS그룹(-21.99%)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기아차와 현대차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데 힘입어 그룹 전체 영업이익도 늘었다. 현대차그룹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2조4559억원에서 올해 3조4027억원으로 38.55% 증가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영업이익(2335억원→2869억원)도 한국조선해양의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22.87% 늘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의 전체 매출액은 323조3160억원으로 3.10% 감소했다. SK그룹(-18.38%), 한화그룹(-14.24%), GS그룹(-8.64%), 현대중공업그룹(-7.00%), 삼성그룹(-6.63%), 롯데그룹(-3.84%), LG그룹(-0.11%) 등 7개 그룹이 역성장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www.pdna.co.kr

다시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 디 엔 에 이 크림 & 세 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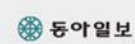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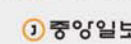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애플 잡아라’... 삼성, 고공성장 스마트워치 맹 추격전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걷기·수영 등 7개종목 자동측정
39개이상 운동관리, 수면분석도

애플 ‘애플 워치’

2분기 아이폰 매출12% 하락세
워치 50% 성장 ‘역대최대 기록’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삼성전자



미 스마트밴드 4.

/샤오미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면서 스마트워치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걷기, 달리기 등 기본적인 운동 기록부터 수면 분석과 스마트폰 연동까지 가능해 전화 걸고 받기, 메시지 보내기도 가능하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워치 판매량은 전년(2017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37%의 점유율을 보인 가운데 삼성과 애플이 각각 10%와 9%로 그 뒤를 이었고, 핏비트, 아마즈핏, 화웨이는 지난

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중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로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9%를 차지했다. 작년 3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워치 시리즈가 전체 판매량의 50%를 차지했는데 길어진 배터리 수명과, 사용자환경(UI)을 조작할 수 있는 회전 베젤, 전형적인 원형 시계 형태 디자인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

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스마트워치 신제품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출시했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수영, 로잉 머신 등 7개 종목을 자동 측정하고 총 39개 이상의 운동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수면 분석도 가능하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입지

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 워치’는 아이폰 판매량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애플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이폰 매출은 12% 하락했으며,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낮은 판매량을 보였다. 매출 기여도는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애플워치는 2분기에 5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매자의 75%가 이 분기에 처음으로 애플 워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웨이도 스마트워치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화웨이의 소비자 부문 사업 중 스마트워치 사업부가 올해 유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특히 성장세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샤오미 제품도 국내에서 꾸준한 판매되고 있다. 샤오미에 따르면 미 밴드 시리즈의 한국 시장 출하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오는 20일 신제품 미 스마트밴드4를 국내 출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업체는 웨어러블 기기를 자사의 스마트폰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경기 불황에도... 프리미엄 추석선물 인기

신세계백, 5스타 품목 21개로 확대
갈치·육포·곶감·견과류 등 추가

남과 다른 차별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한정 물량만 생산되는 프리미엄 명절 선물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이 명절 선물을 프리미엄과 일반 선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명품으로 분류되는 5STAR(프리미엄급/신세계가 산지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품목별 명절 선물) 상품들의 신장률이 일반 선물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추석선물 매출은 한 자리 수 성장에 그친 반면, 프리미엄 품목들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고성장하며, 전체 신장률의 2~3배를 훌쩍 넘는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은 매년 명절 행사에서 최상급의 프리미엄 상품을 선보여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0만원의 명품 한우세트(명품 한우 스페셜)는 최상위 등급 한우에서 소량 생산되는 최고급 부위로 만들어 20세트 한정 판매한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분판매 시작 후 3일 만에 모두 판매됐다.

또 1마리당 28cm가 넘는 특대 봄조기로 구성된 120만원의 명품 재래굴비(명품 재래굴비 특호)도 매년 최대 30~50세트가 준비되지만 한우와 마찬가지로 행사 초반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프리미엄 명절 선물 인기로 신세계백화점은 올 추석 5STAR 품목을 지난해 16개에서 21개로 5개 품목을 늘린다. 또 기존 한우, 굴비, 과일로만 꾸려졌던 5STAR에 처음으로 갈치, 육포, 곶감, 견과류를 추가했다.

먼저 40만원에 달하는 ‘명품 한우 육포’를 선보인다. 1++등급 국내산 한우 우둔과 함께 값이 비싸 주로 구입용으



신세계 명절 선물세트 매장(위)과 신세계 명절 선물.

/신세계백화점

로만 판매되던 채끝을 엄선해 구성했다. 기존 육포에 비해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굴비만큼 비싼 명품 갈치도 내놓는다. ‘명품 제주 동갈치’ 세트로 청정 제주에서 살집이 오르는 겨울에 어획한 제철 갈치 중에 특대 사이즈만 선별한 것으로 가격은 60만원이다. 일반적인 선물세트에 사용되는 갈치보다 2~3배 큰 특대 갈치만 엄선해, 머리와 꼬리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몸통 부위로만 구성했다.

이밖에 ‘명품 곶감 세트’와 제주 특산물인 우도 땅콩까지 엄선한 ‘명품 견과 세트’도 마련해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김신진 상무는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명품으로 구분되는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산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명절 선물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 V50, 듀얼스크린 배송지연 잠잠한 이유는

LG전자, V50 판매량 예상보다 많아
듀얼스크린 물량부족... 배송에 2달
‘무료증정’에 배송 기다리는 분위기

LG전자 V50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무료 증정품인 듀얼 스크린 배송도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LG 스마트폰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도 감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번달까지 V50 구매자들에 듀얼 스크린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2달에 달하는 발송 대기 기간이다. LG전자는 8월 V50 구매자에 듀얼스크린 배송까지 2개월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전에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배송 연기를 공지하기도 했다.

듀얼스크린은 V50의 주변 기기다. LG전자가 아닌 협력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로 구매하면 20만원 상당이다.

소비자들은 배송지연 고지에 유쾌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V50이 듀얼스크린을 주요 기능으로 내세웠던 만큼, 제



지난 20일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LG V50 생큐 게임 페스티벌에 방문한 관람객이 LG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전자

품 핵심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 때문이다. LG전자가 조만간 V50 후속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단, 대부분 소비자는 배송 지연에도 개의치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항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소비자들은 배송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가장 큰 이유는 듀얼 스크린이 무료 증정이라서다. 20만원 상당 액세서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 기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가장 뚜렷하다.

듀얼스크린 활용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V50과 듀얼스크린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IT 기기로 주목받는 상황, 구글 스타디아 등이 올해 말 론칭을 준비 중이다.

V50 단일 기기 만족도도 높다. V50은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는 등 플래그십 성능 갖추면서, 무게를 185g으로 최소화한 제품이다. 그동안 LG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던 소비자들도 호평하면서 LG 스마트폰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LG전자 관계자는 “V50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리면서 듀얼스크린 공급에 다소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라며 “배송 연기 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만큼, 실제 공지된 기간보다는 더 빨리 듀얼스크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냉장고로 SNS 업로드... ‘LG 냉장고’ 주목

LG전자, 스마트 기능 자연스럽게 알려

LG전자 냉장고 ‘스마트’ 기능이 새삼 전세대에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로서’가 LG전자 냉장고로 SNS에 업로드한 글에 네티즌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시물 내용은 단순하다. 모친이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해서 냉장고로 글을 업로드했다는 얘기가.

사연은 이렇다. 도로서는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열성팬으로 SNS를 활발하게 이용해왔지만, 전자 기기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는 자녀를 걱정한 모친이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을 압수당하면서 돌연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도로서는 오랜 고민 끝에 냉장고에서도 SNS에 접속할 수 있음을 떠올렸다. 그리고 냉장고를 이용해 지인들에 사정

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로시를 응원한다는 의미로 해시태그 #FreeDorothy를 만들기도 했다. 도로서도 스마트냉장고로 감사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남겼다.

LG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사 냉장고 스마트 기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 기능을 알고 있던 소비자도 이번 일을 통해 실제 쓸 수 있음을 확인했다. 홍보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용 기자

소재·부품 국산화 타고... 웨이퍼캐리어 점유율 50%로

코스닥스타를 찾아서

3S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양산 시장점유율 15%→50%로 확대 목표 삼성전자와 신형 웨이퍼캐리어 개발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바람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91년 설립돼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3S다. 3S는 국내 유일의 웨이퍼캐리어 생산 기업으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웨이퍼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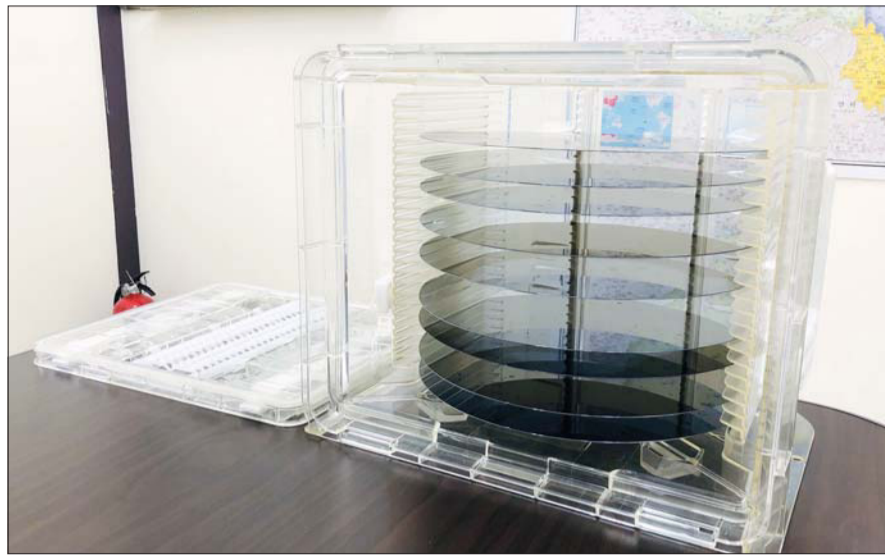
김세완 3S 대표는 “현재 국내 웨이퍼캐리어 공급의 약 15%를 3S가 차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 국산화와 함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FOSB 웨이퍼캐리어 양산 기업

3S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캐리어

어양산기업이다. 웨이퍼캐리어는 웨이퍼 생산업체에서 완성한 웨이퍼를 반도체 생산업체로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클린진공박스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지만, 반도체 특성상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특수용도 케이스다. 웨이퍼캐리어는 전공정용인 FOSB(Front Opening Shipping Box)와 후공정용인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로 나뉘는데, 3S의 주력 제품은 300mm FOSB다.

3S는 국내 웨이퍼캐리어의 약 15%를 점유 중이다. 3S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1차 관계사인 웨이퍼 제조 기업에 웨이퍼캐리어를 공급한다. 싱가포르, 대만, 독일 웨이퍼 업체로 수출해 웨이퍼를 담아 국내 반도체 완성업체로 들어간다. 나머지 85% 이상은 일본 제품이 사용된다. 웨이퍼캐리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엔터그리스(Entergris)와 일본의 시네츠(Shinetsu), 미라이얼(Miraial), 한국의 3S, 4곳만이 양산 공급하고 있다. 각각 점유율은 일본이 75%, 미국이 10%, 그리고 한국이 15%다. 미국의 엔터그리스제품



3S의 FOSB 웨이퍼캐리어.

/배한님기자

은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캐리어는 일본 제품과 한국 3S 제품으로 나뉜다.

3S는 지난 2007년 일본 골드공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FOSB 웨이퍼캐리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2009년 10월부터 양산·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웨이퍼캐리어는 3S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한다.

김 대표는 “웨이퍼캐리어는 모두 안성 1, 2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현재 설비상으로는 월 캐파(CAPA)가 4만5000개며 현재는 1만2000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물량이 늘어나 급형 추가 승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월 3만개 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S는 이 밖에도 대기업을 제조한 에어컨, 냉장고 등의 성능과 신뢰도 등을 테스트하는 환경시험장치 ‘칼로리미터’도 생산하고 있다. 칼로리미터 사업

은 3S 전체 매출액의 55~60%를 차지한다.

3S는 2018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약 357억원, 영업이익 약 16억원, 당기순이익 약 14억원이었다. 3월 결산기업인 3S는 지난 14일 1분기 보고서 제출했는데, 1분기 만에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달성했다. 3S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약 75억원, 영업이익 약 8억4000만원, 당기순이익 약 8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웨이퍼캐리어 매출액은 약 3억4000만원, 영업이익은 7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공장 설립 등 비용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고 흑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웨이퍼캐리어 등 소재·부품 국산화에 힘써

3S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웨이퍼캐리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작년 말부터 3S 공장을 방문해 쪽 돌아본 뒤 3S가 자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말했다”며 “삼성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웨이퍼캐리어를 개발해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삼성에서 속도를 더 내자고 해서 일본 제품과 3S 제품을 5:5로 쓸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고 덧붙였다. 신형 웨이퍼캐리어는 내년 초 개발 완료해 삼성전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삼성전자가 매년 150만개의 웨이퍼캐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50%인 70만개만 댈 수 있어도 150~160억까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와도 웨이퍼캐리어업그레йд를 함께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1차 관계사인 웨이퍼 제조기업 SK실트론과 웨이퍼캐리어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3S는 이 밖에도 웨이퍼 잉곳을 키우는 반도체용 그릇인 석영 도가니용 합성석영도 개발했다. 특히도 출원 중이다. 현재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 투자처를 찾고 있다. 김 대표는 “합성석영분야는 조 단위의 큰 시장이나 국내에 이걸 만드는 곳이 없어 일본에서 거의 다 수입 중”이라며 “양산을 할 수 있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3S 안성 2공장.

/3S

해외 임직원 2.1만명 ‘홀쩍’... 글로벌 물류사 ‘순항중’

CJ대한통운

전체 임직원의 76.8% 차지

공격적 M&A·시장 공략으로 매출 ↑

CJ대한통운의 발걸음이 하늘, 땅, 바다를 뚫고 무진 누리고 있다.

전 세계 37개국, 148개 도시에서 ‘CJ대한통운’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임직원이 2만10000명을 훌쩍 넘어 글로벌 물류 강자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한통운이 2013년 당시 CJ그룹 품에 안기고, 사명도 CJ대한통운으로 바뀐 후 해외 임직원수만 7.2배 늘어나며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 세운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수는 2만114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를 포함한 CJ대한통운 임직원수는 올해 상반기 현재 총 2만7527명이다. 해외에 있는 숫자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

CJ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만해도 해외 임직원수는 2920명에 그쳤다. 전체 임직원 가운데 해외 근무 인원은 33.8%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러다 10명 중 8명으로 크게 늘었다.



CJ대한통운의 미국 뉴캐슬리시인 DSC로지스틱스 직원들이 물류센터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해외 임직원 인원은 CJ로킨, CJ스피텍스 등이 영업하고 있는 중국이 7028명(33.2%)으로 가장 많다.

또 K-택배 등이 진출한 태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5249명(24.8%)이다. 이외에 DSC가 위치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남미 지역이 4644명(22.0%), CJ다슬을 중심으로 한 인도 3348명(15.8%) 등이다. 특히 국내 물류기업으로는 드물게 알제리, 쿠웨이트,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 등에도 현지 임직원 10여명이 근무하며 글로벌 물류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이처럼 글로벌 물류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CJ그룹에

편입된 후 진행된 공격적인 인수합병(M&A) 때문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은 가장 중요한 진출지로 꼽고 있는 중국에서 2013년 CJ스마트카고, 2015년 CJ로킨을 각각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2016년에는 세계 3대 가전기업인 중국 TCL그룹과 물류합작법인 CJ스피텍스를 설립, 전기전자 물류시장에도 진입했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CJ센추리로지스틱스 인수(2016년), 필리핀 CJ트랜스네셔널 합작법인 설립(2016년), 베트남 CJ제마덱 물류·해운 부문 인수(2017년), 태국 택배시장 진출(2017년) 등도 진행했다.

특히 2017년 당시 인도 최대 수송기업

<2013년 이후 CJ대한통운 M&A 현황>

시기	이름	국가
2013.4	CJ스마트카고	중국
2015.12	CJ로킨	중국
2016.8	CJ스피텍스*	중국
2016.9	CJ센추리로지스틱스	말레이시아
2016.11	대형 물류센터 인수	인도네시아
2016.12	CJ트랜스네셔널 필리핀*	필리핀
2017.4	CJ다슬	인도
2017.4	CJ ICM	UAE
2017.10	CJ제마덱	베트남
2018.6	DSC로지스틱스	미국

*는 합작.

인 CJ다슬로지스틱스, 중동·중아시아 중량물 1위 기업 CJ ICM 인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인수한 미국 DSC는 세계 물류시장의 비주류였던 대한민국 물류가 주류 물류시장 공략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같은 공격적인 글로벌 M&A 결과 2013년 당시 연간 1조706억원이었던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매출은 올 상반기에만 2조45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베트남 CJ제마덱이 지난해 2월, 미국 DSC의 실적이 지난해 8월부터 연결 실적에 반영된 만큼 올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홈쇼핑

‘추석사전에약관’ 기획전

홈쇼핑은 2014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빠른 추석을 맞아 모바일 기획전 ‘추석사전에약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홈쇼핑 모바일 앱 ‘추석사전에약관’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최대 10% 추가할인을 받고, 현대카드 결제 시 추가 청구할인 7%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홈쇼핑의 대표 프로모션인 ‘10&10(10%할인 및 10%직접)’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고일 지정도 할 수 있다.

상품 옵션 중 ‘출고일’을 선택하면 지정 출고일을 기준으로 2~3일이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출고일은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날짜 중 원하는 날을 지정하면 된다. 출고일 지정이 없을 경우엔 당일 배송으로 진행된다. 또 ‘추석사전에약관’에서 동일 상품을 100개 이상 대량구매 시 해당 상품 판매담당MD와 직접 연결을 통해 가격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日매체’ 과거사 반성 韓日관계 전환점 맞나

日매체 “과거반성 뜻 표명해야”
아사히신문 “다시 역사인식 밝혀야”
도쿄신문 “일본도 마이너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베 신조 총리대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기업 대상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한 이유로는 우리 대법원의 ‘과거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우선 아베 정권을 향해 과거사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본 언론은 이렇다. 아사히신문은 17일자 조간에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차세대에 넘겨줄 호혜관계 유지’이란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냉대해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라 평가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씬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 번 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에 대해서 “양국은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양국은 이미 호혜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며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 및 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쿄신문 역시 같은날 조간에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도쿄신문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은 문제

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대화로의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시간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선지 정계에서는 일본 외신들의 이러한 입장이 일본이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신들이 일제히 아베 정권을 향해 우리나라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 경제보복이 양국 모두에 이로운 게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다들 동의를 할 것”이라며 “승자 없는 게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외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자사고 재지정 후폭풍

영재·과학고에 인재 몰린다

영재학교 선호도 4.3%p 증가
선호도 상위 10개학교 순위 재편
“지정취소 자사고 법원결과 불투명”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발표 이후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중학생 학부모의 고교 선호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지정된 자사고 선호도가 크게 올랐고, 영재학교, 과학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반면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 선호도는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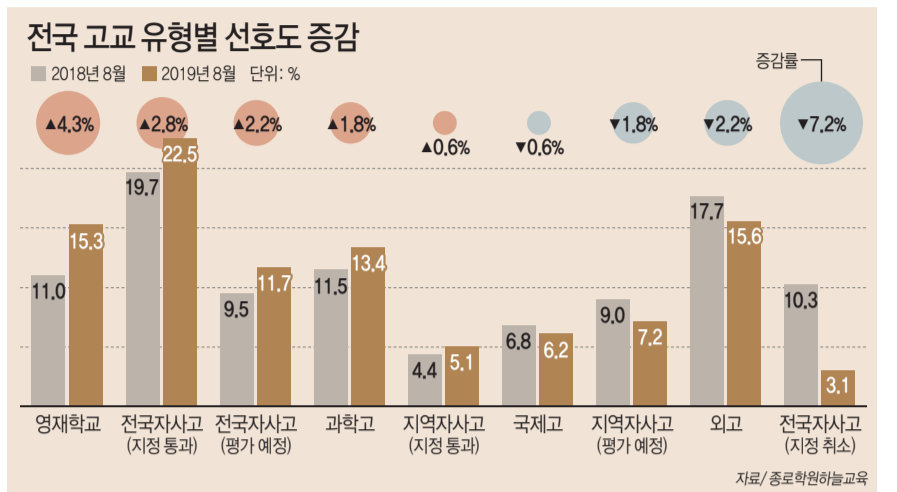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5일~17일까지 전국 중학생 학부모 4573명을 대상으로 고교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년 8월 같은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영재학교 선호도가 전년 11.0%에서 올해 15.3%로 4.3% 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재지정이 확정된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가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증가했고, 과학고는 11.5%에서 13.4%로 1.8% 선호도가 올라갔다.

반면, 지정 취소된 지역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10.3%→3.1%)으로 크게 하락했다.

내년도 재지정평가 대상인 외고(17.7%→15.6%)와 국제고(6.8%→6.2%) 선호도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선호도 상위 10개 학교의 순위도 바뀌었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가 8.8%



로 선호도가 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2위 외대부고, 3위 서울과고, 4위 대원외고, 5위 상산고, 6위 세종과고, 7위 경기과고, 8위 한성과고, 9위 경기북과고, 10위 한국과학영재학교 순으로 재편됐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역단위 자사고 중 비강남권 학교들은 사실상 그 지역 내에서 진학실적 등에서 최상위권에 속해져 있는 학교들로 앞으로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호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역 내 학부모들이 사실상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호도 하락세는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재지정 통과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학교별 선호도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외대부고였고, 하나고,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원외고가 상위 5위에 들었다.

외대부고의 경우 사실상 경기권에서는 유일한 자사고이므로 재지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학부모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결국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올해 중3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정취소된 자사고 법원 처분결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내년도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단위 자사고 선호도는 상승해 합격 가능성이 낮고, 일반고간 협력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고교 선택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치공세” vs “위장 3관왕”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불꽃 공방’ 예고

보수진영 “내로남불의 전형”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부적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원이 고조하고 있다. 야권은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야권의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가 납부’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위장 3관왕’이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책임자였던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 5대 원칙’을 어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기득권 타파와 정의를 외쳤던 조 후보의 본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는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또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이어 채무변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념적·도덕적으로 모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말인 17일 오전 여름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책회의에선 주광덕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의 채무변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를 앞두고 색깔론과 가짜뉴스 같은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야권을 겨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전문성·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0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2회로 제한된다.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이 기존 1988년 이후 출생자에서 연령 무관으로 폐지,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하는 게 좋다.

/한용수 기자



치피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치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언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동서발전-코이카, 중소벤처 육성 등 맞손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 180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중소벤처 육성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이카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을 통해 해외정경개발체제(CDM)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국내 중소기업에 육성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박 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왼쪽)과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발전



서울사이버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소재 본교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졸업생 1014명을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졸업식에서는 만 69세의 최고령 김정희(특수심리치료학과) 씨와 만 20세 최연소 윤수영(문화예술경영학과) 씨를 비롯 학사 994명, 석사 70명 등 총 1014명이 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원길 인본주의상'에 라파엘클리닉

가톨릭대학교 선정

22년 간 외국인 노동자 무상 진료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는 '제7회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수상자로 자선의료기관 라파엘클리닉(대표 김창덕)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진료 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를 주축으로 1997년 4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2년 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 진료 활동을 이어왔다. 혜화동 성당 간이 진료소에서 출발한 라파엘클리닉은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가톨릭대 신학대학 성신관을 거쳐 동성고등학교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이어갔다. 지난 2014년에는 현재 진료소가 자리하고 있는 성북동 라파엘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hys@



스콜 서울 클럽 단체 회원들이 2019년 행사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스콜서울클럽

'창립 50주년' 스콜 서울클럽, 디너 행사

오는 30일 포시즌 호텔에서 개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 기관인 국제 스콜 서울 클럽(회장 라두 체르니아 매리어트 서울 총지배인)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 포시즌 호텔에서 대규모 갈라 디너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최대 민간 관광 기관이자 가장 오래된 단체인 국제 스콜은 지난 1934년 파리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현재 유

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90여 개 국가에 400개 클럽이 있으며 1만 5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번 50주년 행사에는 서울클럽 회원과 인친 클럽 회원 모두가 참석하며, 정부 관광 기관, 항공사, 언론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다른 스콜 클럽 관계자들까지 서울을 방문해 직접 축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세계 스콜 클럽을 대표하는 회장과 전임 회장들, 자매 클럽 회장들이 보내온 다양한 화상 축하 인사도 소개된다.

/이민희 기자 lhm@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따른 취업규칙 개정



김보락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 16.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얼마나 제도적 실효성이 있겠냐는 일부 우려와는 달리, 법 시행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 사례들이 보도되고, 기업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문화에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을 판단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면 될 것이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호). 그러나 미신고 확인 즉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반드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외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근

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드시 추가할 필요는 없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통상적으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사항(예: 법령 위반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으로도 포섭이 가능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내해결절차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만을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기, 수시, 특별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심사를 통해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율에 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나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KT, 가나에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폰 앱 'GEPP 가나' 출시행사
감염병 정보 제공 등 감시역량 강화

KT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서비스를 시작한다.

KT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가나에서 'GEPP 가나' 출시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가나 보건청에 감염병 감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GEPP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한 후 ICT를 활용해 보건정보시스템을 선진화한 덕분이다.

KT와 가나 보건청은 스마트폰 앱 'GEPP 가나'를 통해 국민들에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위험 지역 방문시 위험 알람과 근처 병원 검색 기능도 있다. 디지털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연말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KT 미래플랫폼사업부부장 이동면



KT와 가나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GEPP 론칭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부장, 바두 사코디에 가나 보건청 공중보건국장, 이베네저 오다메 보건부 정책기획국장, 김성수 주가나 한국대사관 대사, 안소니 나시아 아사레 가나 보건청장. /KT

사장은 "체계화된 보건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 국민들이 동등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KT는 다양한

기술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장벽을 초월해서 인류 공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 주한미군기지원단 지원단 부단장 정용욱 △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김민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파견 이성춘
- ◇ 과장급 △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장 서영석 △ 조세심판원 조사관 은희훈
- ◆산업통상자원부 ◇ 전보 △ 통상정책총괄과장 최진철 △ 철강세라믹과장 김현철
- ◆환경부 ◇ 과장급 전보 △ 자연보전정책관실 자연생태정책과장 유명수
- ◆충남 보령시 ◇ 5급 승진 △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 회계과장 김정수 △ 수산과장 김광주 △ 청라면장 맹진영 △ 남포면장

부음

- ▲ 조승기씨 별세, 조동범·조명순·조동영(삼성의료원 복지관 운영총괄)·조현순·조동울(제일기획 the SOUTH 본부장)·조동현(트로바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 최창식(전 ETRI 사업개발실장)·이재완(희림건축 전문)씨 장인상 = 17일 오전 4시30분,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54-634-1444.
- ▲ 김순여씨 별세, 이영돈(전 채널A 전무)씨 장인상 = 17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2-3779-1526.

- ▲ 전인택 씨 별세, 전종률(G1강원민방 영동본부장) · 주희 · 영준 씨 부친상, 변영혜(강원도사회복지사업회장 · 춘천효자복지관장) 씨 시부상, 김성호(중앙일보 마케팅팀) 씨 장인상 = 17일 낮 12시10분, 강원대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10-5368-8701.
- ▲ 최순연씨 별세, 조영화·조희아·조용중·조덕우(예탁결제원 고객행복센터 팀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11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벽제 송화원. 02-2227-7590.
- ▲ 임호욱(전 부산일보 논설위원·전 경남매일 편집국장)씨 별세, 임갑일·임세일씨 부친상, 전양희씨 시부상 = 16일 오후 2시44분, 부산 시민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51-636-4444.



갤러리아명품관 “가을엔 글러브 백 매고 피크닉 가요” 갤러리아명품관은 올 가을 시즌 가방 트렌드로 이색 디자인의 ‘젠더리스 가방’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편집 매장 지.스트리트494음모에서는 장갑 모양 가방, 아코디언 모양 가방 등 다양한 젠더리스 가방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

“꿀잠 자고 싶어요”

잠 못 드는 열대야 ‘숙면제품’ 불티

기능성베개 매출 전년동기비 2배 ↑
아로마 캔들·수면 관련 서적 등 인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하면서 질 높은 수면에 대한 니즈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열대야로 인한 불면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G마켓에서 최근 한 달(7월 14일~8월 13일) 간 수면 용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쿨링 기능 등을 갖춘 기능성베개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04%) 신장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메모리폼 베개와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각각 71%와 70%씩 더 팔렸다.

더위로 인해 주기적으로 잠에서 깨면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편안한 호흡을 유도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제품들도 주목 받고 있다.

쿨등에 붙여 원활한 호흡을 돕는 숙면 코밴드 판매는 동기간 2배 가까이(94%) 더 팔렸다. 또, 더위로 올라간 불쾌지수와 심신을 가라앉혀주는 아로마 캔들 판매는 29% 신장했다.



쿨쿨 쿨링 베개(왼쪽), 브리드라이트 숙면코밴드. /G마켓

뿐만 아니라, 한밤중 요란한 매미 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귀마개/소음방지 상품도 34%의 판매 신장세를 보였다.

서점가에서도 수면을 다룬 과학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으며, SNS에서는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수면 경제)’란 말이 등장할 만큼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2012년 5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수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자, 주요 백화점들은 침구 할인 행사 및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고객들을 상대로 수면 컨설팅을 해주는 ‘꿀

잠 페어’를 진행해 큰 관심을 모았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침구 할인 행사인 ‘쿨베딩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바세티·알레르망·설베딩 등 2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최초 판매가 대비 50~70% 할인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면 환경은 다르지만 ‘질 높은 잠’을 통한 더 좋은 일상에 대한 니즈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좋은 수면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돕는 다양한 휴퍼니싱 제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 고랭지 수박 30% 할인판매

고랭지 1모작 수박 물량 대폭 확대
고지대서 재배해 최적의 여건 조성

이마트가 고랭지 수박 물량을 대폭 늘린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경북 영양, 봉화 등지에서 출하된 ‘고랭지 1모작 수박’인 산(山) 수박 10만 통을 기존 대비 30% 가량 할인된 1만 2500원(7~10kg/통)에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은 국내 최대 수박 산지인 충남 부여, 논산 등지가 아닌 경상북도 영양, 봉화 등 해발고도 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된 것으로, 이마트는 지난해보다 준비 물량을 60% 가량 늘렸다.

폭염으로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일반 평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물러지고, 당도가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은 고랭지 수박이 인기를 끌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의 지난해 8월 고랭지 1모작 수박 매출신장률은 325.8%를 기록하는 등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마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고랭지 1모작 수박의 산지인영양, 봉화는 일반 평지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잘 돼 수박 생육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 조성된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크면 낮 시간 동안 과일이 활발한 광합성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 후, 이를 야간에 고스란히 당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진다. 또, 작물이 밤 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과피가 단단해지고 아삭한 식감, 짙은 향을 자랑하는 수박이 생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8월이면 고랭지 수박 출하량이 늘어나고 수요 또한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지대가 널리 분포된 강원, 영남의 수박 출하 비중은 7월 40% 수준에서 8월 50%로 10%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원선 기자



GS25, 노케미족 위한 ‘넬리소다세탁제제’

북미 인기상품... 편의점서 첫 선

환경오염 및 건강을 우선하는 트렌드에 노케미족(화학성분보다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과 체크슈머(제품의 성분과 원재료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확산되면서,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세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데이터사이언스팀은 상반기 매출 데이터를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친환경세제 분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95% 성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GS25는 자연유래 원료로 만들

어져 캐나다, 미국 등 북미에서 인기가 높은 넬리소다세탁제제를 편의점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GS25가 이번에 출시한 넬리소다세탁제제는 피부 자극은 적고, 생분해도(세제와 비누등이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것)는 우수하다. 북미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인 에코로그(Ecologo)를 받았다.

넬리소다세탁제제는 합성계면활성제, 인산 등 일반 세제에 사용되는 7가지 화학성분 대신 소다, 소금 등 자연 유래 성분이 사용됐으며,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는 등 공개하고 있어 신뢰도를 높였다. /김민서 기자

현대백 “추석선물도 킬러버”... 이색세트 40종

소용량 다품목 선물세트 2배 늘려
과일·수산물 세트 등 1인가구 공략

현대백화점이 추석예를 앞두고서도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함께 넣은 이색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단일 품목의 대용량 선물세트 대신 용량이 작지만 여러 품목이 포함된 선물세트로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2일까지인 2019년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올라보레이션 선물세트’를 지난 추석 때보다 2배 늘린 40종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라보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식구수가 적은 만큼 단일 품목의 대용량 제품보다는 여러 품목이 함께 구성된 소용량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추석



/현대백화점

선물세트 판매기간 선보인 ‘로브스터·전복’, ‘애플망고·사과’ 등의 ‘올라보 선물 세트’가 모두 완판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과일 올라보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아보카도와 망고를 섞은 ‘아보카도·망고세트(8만5000원~9만5000원)’와 사과·배·샤인머스켓을 혼합한 ‘혼합 선물세트(10만~12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멜론·거봉·사과·황금향 등으로 구성된 ‘과일 바구니세트(16만원~18만원)’도 명절 선물세트로

내놓았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갈치·딱새우·가자미 등 제주산 수산물을 혼합한 ‘제주 만찬 세트(12만원)’, 전복과 로브스터를 혼합한 ‘전복·로브스터 세트(18만원)’와 제주산 돌돔과 뽕꼬리를 함께 포장한 ‘제주 돔 세트(18만원)’, 전복·영덕게살 등을 혼합해 만든 ‘어부의 밥상 명품어찬 혼합 세트(15만원)’ 등도 선보인다. 이밖에 버터·치즈·올리브유 등 인기 상품을 포장한 ‘구르메 치즈 세트(9만8000원)’와 쌀·잡쌀·적두 등을 모은 ‘유기농 금쌀 오곡 세트(13만원)’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소포장 200g 단위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를 정육 선물세트 물량을 4배 이상 늘리고, 고등어·삼치 등을 소포장해 간단히 데워먹을 수 있는 ‘생선구이 세트’ 등도 첫 선을 보인다. 또한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 ‘원테이블’의 선물세트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다. /신원선 기자

BGF리테일,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추석 전 상품 및 물류 중소협력사에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여 개 업체들의 상품 거래 및 물류 정산 대금 약 500억 원을

평소보다 약 1주 가량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9월 10일이다.

BGF리테일은 매년 명절에 앞서 중소협력사 거래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유연한 지급 기준으로 거래 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중소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동반성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GF리테일 박재구 사장은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놀러왔고 싶다”... 집순이도 반하는 내 집 같은 ‘편안함’

★ ★ ★ 내게 맞는 호텔 찾기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272개 전 객실 온돌난방 적용
침실·거실 분리로 답답함 '뚝'
2호선 시청역 시내중심부 위치
비즈니스·휴식·미팅 안성맞춤



파노라마 라운지 앤 바.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의 객실.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때때로 지루한 일상의 터닝포인트가 돼주곤 한다. 깨끗하고 객실, 폭신한 침대, 멋드러진 식당 등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서 즐기면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박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출장이나 가족 여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일 사먹는 밥이 질리고, 간단한 야식 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찾는 곳이 바로 레지던스 호텔이다. 취사 시설은 물론이고, 세탁 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안성맞춤이다.

◆주방·세탁 완비...단기 고객 만족 ↑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은 스튜디오부터 펜트하우스까지 272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호텔은 전 객실에 취사가 가능하도록 가스레인지와 후드, 전자레인지,

전기 밥솥 등의 주방 시설이 완비돼 있다. 또한, 식기류와 함께 룸타입에 따라 식기세척기가 들어선 곳도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마련됐다.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꼽자면 스튜디오 외 객실은 침실과 거실이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잠자는 공간과 생활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갑갑한 느낌을 없앴다.

또한, 전 객실이 온돌난방으로 돼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카펫이 깔리지만 이곳에는 마룻바닥이 설치돼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숙박부터 미팅까지 한 번에

프레저 플레이스는 국내·외 출장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5호선 서

대문역 등과 가깝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레지던스 호텔이란 특징과 함께 호텔 내부에 마련된 업장들도 매력적이다. '퍼스트 플로어'와 '파노라마 라운지 앤 바'가 여기에 해당된다.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1층에 자리한 퍼스트 플로어(First floor)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로 꾸며져 격식을 갖춘 비즈니스 미팅부터 캐주얼한 미팅까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코스 요리와 함께 한식, 중식, 양식을 모두 맛볼 수 있다. 해물 중식 냉면, 동파육을 올린 산동식 마늘 중 볶음밥, 치킨 베이컨 랍과 토마토 샐러드, 전복 시금치 파파말레 등이다.

또한, 각 계절마다 시즌 메뉴를 선보

이는 것이 특징으로, 최근에는 보양식을 포함한 여름 계절 메뉴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초계 메밀국수와 송이전복 닭죽 등이다.

호텔 최상위 23층에 자리한 '파노라마 라운지 앤 바'는 서울의 도심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루프탑 바다. 서울 도심을 조망하며 브런치와 식사, 커피와 티, 와인과 주류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무제한 바비큐(BBQ)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은 파노라마 라운지 & 바에서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바비큐를 생맥주와 함께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유기농 채소를 비롯한 4가지 음식의 미니 샐러드 바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 31일까

지 진행되며, 이용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다.

◆아이도 반려동물도 'OK'

레지던스 호텔인 만큼 가족 단위 고객의 예약률도 높다. 호텔은 어린이 고객을 위한 어린이 풀장과 놀이방, 실내수영장을 마련해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는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한 '프레저의 비밀 노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 중인 클래식 놀이극 '베토벤의 비밀 노트' 공연 티켓(2매)을 포함해 프로그램북, 퍼스트 플로어 조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곳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호텔이기도 하다. 프레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은 반려견 동반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하림 펫푸드 사료와 간식 세트, 배변패드, 전용 식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레저 플레이스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가족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호텔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정동길 산책도 가능하다. 산책 시 휴대 가능한 배변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민서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삼성서울병원

뇌전증 수술, 합병증 발생 0% 검사법 찾아

측두엽 절제술 892명 추적 관찰
'수술중 신경계 변화 감시법' 입증

국내 의료진이 측두엽 뇌전증 수술 중 '운동유발전위 검사'로 신경계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즉시 대처하면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대원 교수팀은 199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측두엽 절제 수술을 한 환자 892명을 추적 관찰해 수술 중 신경계 감시법이 실제로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뇌전증 수술 중 측두엽 절제 수술은 운동 신경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환자 1~3%에서 편마비 등 합병증이 나타나 최근에는 수술 중 신경계를 감시하는 다학제 진료법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팀은 병원에서 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 중 수술 중 신경계 감시를 시행하기 전에 수술을 받은 613명과 감시를 시행한 후에 수술을 받은 279명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비교했다.

신경계 감시법으로는 신경생리검사의 하나인 유발전위검사로서 운동유발전위 검사와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를 이용했다. 운동유발전위 검사는 두피에 설치한 자극전극으로 뇌 운동경로를 자극해 양팔(엄지와 새끼손가락 벌림)과 양다리(전경골근과 엄지발가락 벌림)에 설치한 기록전극을 통해 근육 반응을 파형으로 기록하는 검사다.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는 손목부위의 정중신경과 발목 부위의 후경골 신경을 자

극해 두피에 설치한 기록전극을 통해 감각 영역의 반응을 파형으로 기록하는 검사다. 연구팀은 두 검사에서 신경계 손상이 일어나는지 파형의 이상을 확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구급처치를 시행, 영구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신경 반응 진폭이 감소하는 원인의 50%는 과도한 견인이었고, 뇌척수액 소실 30%, 저혈압 10%, 혈관수축 10% 등으로 모두 응급처치를 통해 대처할 수 있었다. 파형 감시에서 진폭이 50% 이상 감소한 환자들은 총 10명이었다. 운동유발전위 검사는 10명에서 모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는 2명에서만 변화를 감지했다. 운동유발전위 검사로 이상 반응이 확인돼 바로 대처한 환자 10명 모두 합병증이 1달 안에 회복됐다.

반면 신경계 감시 시행 전 수술을 받은 환자 7명에서는 편마비 등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 편마비 1명은 MRI상 뇌기저핵 뇌경색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6명은 중증도는 경미하지만, 통증을 동반한 반신부전마비(3명)와 경도 반신부전마비(3명)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서 교수는 "수술 중 신경계 감시법은 뇌혈관, 뇌종양, 척추, 기능 뇌수술 등 뇌신경계 수술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 연구에서 합병증이 0%로 효과적이라는 점이 증명된 만큼 많은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신경학' 7월호에 실렸다.

/이세경 기자 seilee@

케이크·아이스크림·요거트... 식품업계 '안녕 자두야'



식품업계가 재철 과일 자두를 활용해 소비자 입맛 살리기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높은 습도까지 더해진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신체능력을 저하시켜 입맛까지 잃어버리기 쉽다. 업계에서는 상큼함으로 불쾌지수를 낮추고 새콤한 맛으로 입맛은 돋구는 8월 재철 과일인 자두를 활용한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천연 피로회복제라고도 불리는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고, 사과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성분이 피로를 풀어줘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과일로 알려졌다. 또한 새콤하면서 달콤한 자두 특유의 맛은 식품업계의 식재료로 각광 받고 있다.

공차코리아는 자스민 그린티를 베이스로 자두와 요거트, 스파클링을 조합한 '자두 크러쉬'와 '자두 요거티 스파클링' 신메뉴를 선보였다. 공차의 자두 크러쉬는 자두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고 사각사각 씹히는 알로에 토피를 더해 마치 자두 과육을 먹는 듯한 식감을 전한다. 취향에 따라 코코넛, 알로에 토피를 한번 더 추가해 더욱 풍성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자두 요거티 스파클링은 세계 3대 탄산수로 손꼽히는 초정리탄산수가 더해져 청량감을 더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생과일 음료 브랜드 잠바주는 자두의 신선함을 담은 '리얼 자두주스', '자두 요거트'를 출시했다. 리얼 자두주스는 자두 과육을 갈아 만든 음료로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자두, 비타민C 풍부하고 입맛 돋구 새콤달콤한 맛에 다홍빛 색도 매력 '서양 자두' 푸른 활용 제품도 인기



(첫째줄) 자두 크러쉬 자두 요거티 스파클링, (아래 왼쪽부터)자두롤케익, 아이스콜 자두/라사

자두 요거트는 자두와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 부드러운 느낌의 과일 음료다.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에서도 자두에 스파클링 조합으로 톡 쏘는 청량감을 더한 '자두 에이드'를 선보였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자두 과육이 톡톡 씹히는 식감으로 맛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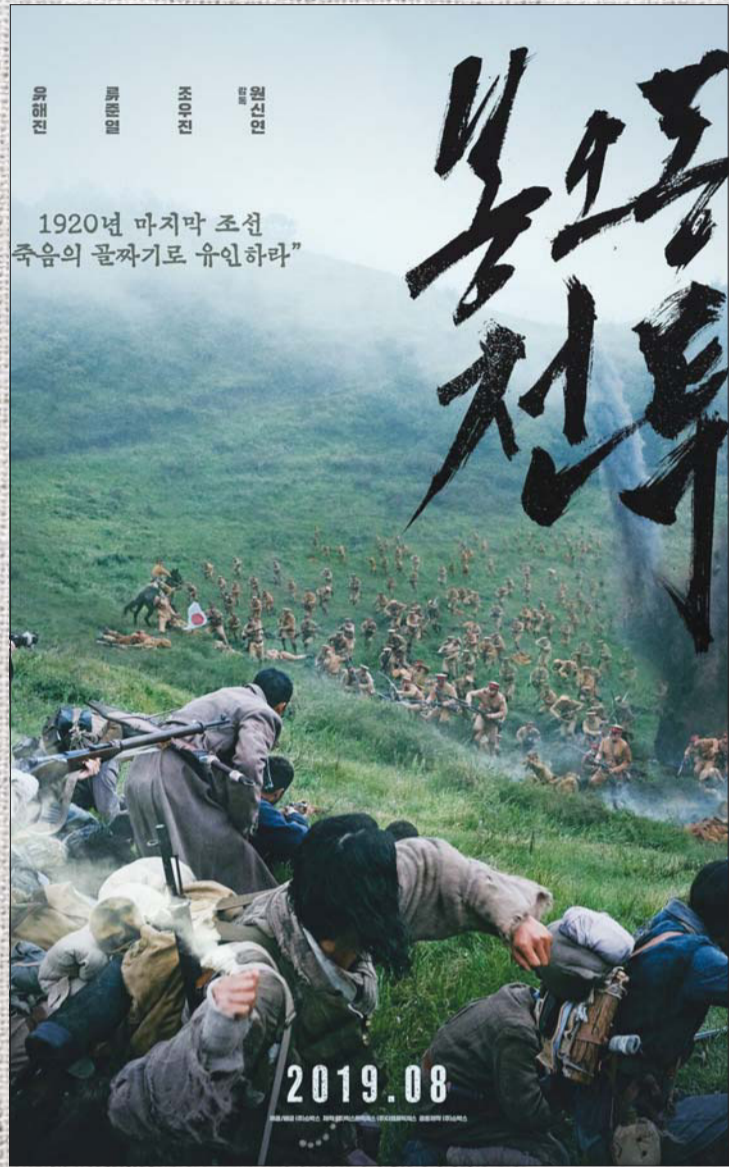
최근 업계에서는 자두 특유의 상큼함과 신선함을 살린 베이커리, 빙과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자두를 활용한 '자두롤케익'을 출시했다. 여름 시즌 한정으로 선보인 이번 재철 과일인 자두의 본연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자두롤케익은 상큼한 자두의 맛을 가득 담은 자두잼과 부드러운 크림이 어우러져 상큼달콤한 맛을 선사한다. 잘 익은 자두를 연상시키는 노란 빛깔과 선명한 다홍빛 색상이 시각적인 매력도 더한다.

해태제과는 자두 원물로 만든 아이스바 '아이스콜 자두'를 출시했다. 자두를 수확한 즉시 농축한 과즙으로 생과일의 새콤달콤한 진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과 과즙을 섞어 뒷맛을 개운하게 만들었다. 인공 감미료를 최소화하고 원과의 당도를 최대한 살려 열량 또한 50kcal로 국내 빙과류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서양자두를 말린 푸른 제품으로 유명한 테일러팜스는 최근 아이들용 푸른주스인 '테일러 키즈푸른'을 선보였다. 테일러 키즈푸른은 푸른 중에서 가장 상위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골든푸른을 갈아서 퓨레타입으로 만든 아이들용 푸른주스다. 푸른의 진한 당도에 사과농축액과 레몬농축액을 첨가해 푸른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원료로 사용되는 푸른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육으로 유명해 변비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장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제격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문화콘텐츠, 韓日역사 온도차 키웠다



20 韓·日 각자의 기억법

지난 7일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한 지 9일 만에 누적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봉오동 전투가 큰 인기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해 8월15일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더 조명받게 된 셈인데, 그만큼 한국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감정과 인식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광복절과 일본의 종전기념을 양국의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각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짚어 봐야 할 시기일 것 같다.

한여름의 15일이지만 한일 양국이 각자 받아들이는 온도 차는 크다. 한국은 일제 통치를 끝낸 기쁨의 날, 일본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쇼와 일왕이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한 날이다.

◆ 객관적 역사의 교훈 없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암살(2015년 개봉)', '밀정(2016년 개봉)'처럼 항일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각각 1200만 여명과 700만 여명의 관객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원의 제로(永遠の0)'가 2013년 관객수 700만 여명을 동원했고 2015년 TV도교에서 3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원작소설은 2009년 출판돼,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반향이 컸지만, 2013년 이후 1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독자들이 늘어났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원작소설은 판매부수는 약 480만부에 달했다.

독립군과 일본제국 군대는 상반된 적대적 존재를 각각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들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양국의 문화콘텐츠들은 '역사적 고증'보다 '국민적 감성'이 앞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에 개봉한 '봉오동 전투'의 경우 일본군 포로가 등장하고, 일본군이 산포(山砲)를 운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실제 1920년 전투 당시 일본군은 산포를 운용하지 않았다. 일본군 측의 기록에 포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포로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던 일본군의 문화적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당시 교전과 관련된 임시정부와 일본군의 교전 기록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임시정부의 기관지 격인 상해 독립신문은 일본군 전사자가 157명이라고 보도했다. 전과 기록마저도 들쭉날쭉이다.

반면 일본군 측의 기록은 일관되게 전사자 1명, 독립군의 피해는 불명확하지만 시신 24구를 확인했다고 기록돼 있다. 양측의 전과 기록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영화는 독립군의 고뇌와 어려움을 진실되게 담기보다 과장된 극적 효과로 그려낸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영원의 제로는 우익 성향의 원작자 하쿠

타 나오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아버지와 친척의 영향으로 쓰게된 창작물이다.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이 된 미야베 큐조가 주인공이다. 미야베는 자살특공대원으로 지원하기 전 당시 일본군에서 수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 가미카제 대원의 고뇌를 함축적으로 담은 인물이다.

하지만, 원작과 영상물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의 기원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오쿠니노다메(나라를 위해)'라는 메시지를 가족애라는 포장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한쪽은 사실과 달리 과도하게 전과를 부각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들의 잘못은 빼버리고 인간애라는 모습을 통해 침략전쟁의 정당성과 일본인의 희생만을 담고 있다.

즉, 한일 양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교훈은 담고 있지 못한 셈이다.

◆ 문화콘텐츠의 위험한 역사 전달성

한일 양국은 각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따른 해석의 차이도 벌어질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진정한 고찰이 따라야만 과거 선조들의 희생 또는 잘못된 판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군사사학자 마틴 판 크레펠트는 그의 저서 'The Culture of War'에서 "전쟁은 게임과 같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실전과 같은 전쟁훈련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기술한 것처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혹은 판단력이 약한

어린들이 무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 한채 무기를 다루는 것은 군에 대한 본질을 호도할 위험성이 높다.

한일 양국 모두 항일독립운동과 침략전쟁의 경험을 했던 세대들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다. 문화콘텐츠

의 주 소비층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전후세대들이다.

일본 메이지 대학의 야마다 아카라교수와 와타나베 겐지교수(전직)는 일본의 전후 전쟁교육과 문화콘텐츠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바 있다.

이들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라디오, TV,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쟁을 오락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일 양국이 과거와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사라는 공동의 인식으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라를 잃었던 민족은 슬픈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여 미래를 지향하고, 침략을 한 국가는 자신의 잘못을 덮지 않고 이웃과 함께 슬픔을 나눠야 이웃과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시각에서의 항전과 침략을 인식하고, 이를 오락성으로 포장하는 수준의 전쟁인식에서 화해의 한일관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etroseoul.co.kr

韓 광복

日 패망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새로 나온 책

문명을 통해 종교를 이해한다

종교는 신의 명령으로 탄생한 게 아니다.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기후 변화에 따른 유목민족의 이동, 국가 체제와 사회 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수립 등을 통해 종교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종교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종횡으로 영향을 미치며 형이상학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냈다. 책은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서 세계 종교를 살펴보는 종교 입문서다.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제국의 흥망성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그 원인이자 결과였다. 신을 믿지 않아도 종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인류의 종교 발자국을 따라가며 읽는 세계 문명 도감. 660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ki10



문명으로 읽는 종교이야기

홍익희 지음/행성B

혼자가 아니라

마크 앙드레 슬로스 지음/양영란 옮김/갈라파고스



버섯은 어떻게 나무를 우뚝 서게 할까. 바다 지렁이는 어떻게 80나 되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걸까. 상리공생을 연구하는 미생물학자 마르크 앙드레 슬로스는 동물, 식물, 인간과 미생물 사이의 공생 관계를 파헤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상리공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진화해 나간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친구들', 미생물 이야기.

520쪽. 2만5000원.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대법원 승소

6년 공방 끝에 최종 승소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6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 인가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

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월 최대 160만원 지원한다

행안부 추경사업 선정 134명 대상 2년간 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기대

광주지역 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 지역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 지역전략산업과 지식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인건비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 지역 우수 청년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활

력 제고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추경사업에 신청해 8월에 선정됐다.

대상 기업은 지역 전략산업(광, 전기, 금형, 의료, 자동차, 에너지)과 지식서비스업(디자인, 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이터닝)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상 청년은 광주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자다.

총 지원 인원은 134명이다.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0월부터 2년간 1인당 월 최대 160만원(인건비의 80%)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에 19일부터 2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업이 선정되면 9월중 기업들의 청년채용이 이뤄지고 채용인력의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신청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홈페이지(www.gjtp.or.kr)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오영걸 시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먼저 찾아온 가을손님, 코스모스

지난 16일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인 담양군 대나무바이오단지(한국대나무박물관 옆)에 활짝 핀 코스모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김태수 기자 ts7080@

장성사랑상품권, 내달 10%할인 판매

5000원, 10000원 2종 구성 현금 구매 시 6% 금액 할인

장성군이 오는 9월부터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내의 가맹점 등록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5000원 권과 10000원 권 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구매 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입처는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와 지역농협, 지역축협 본점 및 지점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장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발행기념 및 추석맞

이 특별 할인기간'을 갖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또 관내 축제의 판매부스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비롯한 장성군의 축제에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은 포상금, 시상금 등 공무원에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출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지급해,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동참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제품 구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과 신규 고객 확보 등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유동자금의 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밝히며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 모집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군은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맹점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장성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90-7351)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19일 (月) 음력: 7월 19일 수도권 날씨 32~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전국 날씨 지도: 연천 18/31, 동두천 19/31, 가평 17/31, 파주 24/33, 서울 21/32, 양평 19/31, 인천 22/30, 수원 21/31, 용인 21/31, 평택 19/31, 백령도 20/27.

강진군, 제16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에너지 중요성·절약 공감대 형성

전남 강진군(군수 이승욱)은 오는 8월 22일 '제16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대 전력

소비(4,589만kw)를 기록한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내 27개 관공서, 공·사기업, 준정부기관도 앞장서서 동참하는 이날

행사에는 전력소비 피크타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 이상 유지하기 등)에도 모든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봉채영 기자



[대학 총장 인터뷰] 조동성 인천대 총장 “新대학평가시대 선도” 04



Life

[산업] 최태원의 인적 투자 SK유니버시티 신설 06



서울 광화문광장 리모델링, 정부청사 인근 손 안대기로

정부청사 기능 훼손 우려 우회도로 건설 방안 검토 市-행안부 온도차는 여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친 서울시가 행안부의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박원순 시장 주재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등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라인은 물론 김원이 정무부시장 등 정부 라인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시의 재구조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공문을 보낸 행안부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시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서울청사 영역을 배제하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와 시는 재구조화 사업에서 경복궁 광화문 앞 티(T)자 도로 상단의 일



자 부분인 사직로-울곡로 구간을 폐쇄하고, 울곡로에서 종로1길로 꺾어 사직로8길과 새문안로5길로 이어지는 유(U)자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안에서 충돌한다.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세종대로를 포함한 기존의 광화문 앞 일대 도로는 티모양이 아닌 와이(W)자 형태로 바뀐다.

문제는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 앞길인 새문안로5길이다. 서울시 계획은 청사 민원실과 경비대 건물 부지를 수용해 우회도로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기존 사직로와 울곡로를 지나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면 2개 차로에 불과한 지금의 새문안로5길은 턱없이 좁아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우회도로를 조성하는 목적인 광화문 앞 월대 발굴과 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행안부가 관리하는 건물인 정부청사의 기능이 훼손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시는 “행안부와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 한편 협의가 완전히 틀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사 부지는 시가 강제수용할 수 없는 땅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회도로 폭을 줄여 정부청사 부지를 침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안부가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직접 난색을 보일 여지는 없어진다.

행안부의 반대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가 정말 ‘실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안부와 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는 착공 시기를 포함해 사업의 전반적 일정에 융통성을 두면서 행안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시와 행안부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시는 행안부가 2차 ‘경고성’ 공문을 보낸 지난 9일 이후 실무진 대면 협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을 찾아 진영 행안부 장관과 만났을 때 따로 자리를 마련해 광화문광장 사안을 논의하자고 직접 제안했으나 행안부 측이 가부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대시민 소통 부족과 여러 실무적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 간 만남으로 상세한 내용 파악이 이뤄져야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지난주에는 행안부측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주에 만나 실무협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발표된 지난 1월부터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를 발표하자, 행안부는 ‘설계안에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부지가 포함된 것은 합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부겸 의원과 박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진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것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행안부는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은 뒤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충분히 협의했는데 공문까지 보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튿날 2차 공문을 보내 “선행조치 없이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이때 서울시는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충분히 협의했는데 공문까지 보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는 이튿날 2차 공문을 보내 “선행조치 없이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 논의가 어렵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삼양동 한달이 강북우선투자로 이어져”

삼양동 37개, 강북구 30개 ‘지역균형발전정책구상’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다양한 형태의 관심 속에 지난해 여름 전격적으로 시행했던 ‘삼양동 한 달살이’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삼양동 37개, 강북구 30개 등 67개 사업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 해를 돌아보며 “삼양동 한 달의 경험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강북 우선투자’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그 이후 시정 전 분야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년 전 박 시장이 약

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현숲마을 커뮤니티 시설, 인수봉숲길마을 커뮤니티 시설 등이 대표적인 생활SOC다.

소나무협동마을 공영주차장, 미아역 리모델링, 나눔카 주차장 확대 등은 주차·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아울러 마실길 전망마루, 강북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북서울 꿈의숲 전망대 도서 휴게공간, 삼양체육과학공원 게이트볼장으로 문화·여가 인프라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설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몇십년간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약속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관람객으로 붐비는 레고 전시회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레고 창작전시회 ‘코리아브릭파티 2019’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레고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530여개 일자리 창출목표

9월 말까지 21차례... 432개 기업 참여

9월 말까지 서울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21차례 열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첫 박람회는 오는 23일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다. 창업을 주 소재로 하는 권역 특성을 살려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등 특강이 준비됐다.

시는 내달 26일까지 이어지는 21회의 박람회에 총 432개 기업이 참여하며 일자리 535개 창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조영미 원장은 “실질적인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구성했다”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 ‘나눔카 구역’

서울시, 나눔카주차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가 10면 이상 시내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설치를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나눔카는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다. 시는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다.

기존에는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공·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처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설치를 본격화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개소 중 약 63%에 해당하는 85개소,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김현정 기자



새로운 생각들이
 쉬고 반항할때
 너면 초창기
 인생가수

새가슴
 화는 화다

미래도
 내사신다

